

제428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8월6일(수)

장 소 기획재정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 질의

가. 기획재정부

상정된 안건

1. 현안 질의 2

가. 기획재정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기획재정부 대상 현안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 개선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자로 임광현 위원님께서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박민규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박민규 위원님은 해외 출장 중이어서 오늘 불출석입니다.

정태호 간사님, 맞지요?

○정태호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오는 날, 오자마자 불출석이네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태호 위원 미리 짜여져 있는 일정이라 가지고……

○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관세협상이 우리 기업 및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협상 과정 및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미 투자의 방법 및 시기 등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거나 우리와 미국 측의 설명이 다르고 FTA 지위 상실에 따라 새롭게 부과되는 15%의 관세가 대기업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에 어떻게 전가될지, 대미 투자 증가가 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감소시키지 않을지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관세협상의 내용과 정부의 향후 계획을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불확실한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께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은 별도 비공개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정확한 협상 내용을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현안 질의

가. 기획재정부

(10시06분)

○위원장 임이자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대상 현안 질의를 상정합니다.

○박수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임이자 예, 박수영 간사님.

○박수영 위원 위원장님, 방금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한미 통상협상, 관세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임이자 예.

○박수영 위원 기업은 물론이고 가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야당 간사로서 기재부 측에 협상이 끝나고 귀국하는 대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에게 보고를 해 달라, 진행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보고할 내용이 없다거나 또는 주말이라는 이런 이유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어떻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빨리빨리 와서 보고하고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마땅한 것인데 그동안의 협상 이후의 기재부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국가, 국익을 생각하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바로 그다음 날 아침에 채택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빨리 관세협상을 진행하고 국익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하라는 이유로 다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을 해 줬는데 국회하고 머리를 맞대야 될 부총리가 다녀와서 신속하게 보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이자 구윤철 부총리겸장관님께서 방금 박수영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세금 인상 관련해서도 본 위원장이 기획재정부에 와서 설명 좀 하라고 몇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위원회에서 심의 끝나고 난 저녁 7시 반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국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은 굴욕감이라든가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로 소통을 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익이 뭔지 또 국민의 삶의 질을 어

떻게 우리가 향상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하는 사항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께서는 나와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박성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일단 인사말씀 끝나고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7월 17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제가 빨리 취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새 정부 첫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2분기 성장률이 반등하며 경기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진짜 성장의 불길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로의 대혁신과 함께 우리 경제의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통해 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난주 미국과의 치열했던 관세협상은 일본, EU 등 주요 국가의 대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의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우수한 조선업 역량을 활용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인 마스가(MASGA)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그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한편 향후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 관세 부과 시 최혜국대우도 약속받았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직면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일본과 EU 등 주요국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던 쌀과 소고기의 추가적인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합의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후속 협상 전략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조선 분야 및 전략산업 협력을 위한 3500억 불 투자 패키지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대미 관세협상 관련 상세한 내용은 국제경제관리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더욱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관 나오셔서 하십시오.

○기획재정부국제경제관리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입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협상 경과입니다.

미국 신정부는 미 우선 무역정책 기조하에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경한 통상정책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기본관세 그리고 국별관세를 발표하였습니다.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구리 등 품목별 관세도 부과 중이며 반도체·의약품도 관세 부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양국 간 협의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재무·통상 분야 고위급 2+2 통상 협의를 실시하였고 이후 실무 협의를 통해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 양국 간 논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월 6일 이 대통령 취임 직후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관세 협의에서 양국이 만족할 합의를 도출하기로 의견 교환이 있었고, 경제부총리와 산업부장관이 임명 즉시 방미하여 미 상무부장관,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서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에 대한 인하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협상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 총 3500억 불 규모의 협력사업을 추진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조선협력 패키지의 경우 1500억 불 규모로 미국 내 조선소 인수·확장, 인력 양성, 선박 MRO 협력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0억 불 규모의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경제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금융 패키지는 투자 규모 등 큰 틀에서만 합의되었고 투자 대상, 수익배분 등 세부사항은 미 측과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향후 4년간 미국 에너지 1000억 불 규모를 추가 구매하는 합의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농산물 등 민감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 요구는 최대한 방어하였습니다. 쌀, 소고기, 과채류 등에 대한 강한 시장개방 요구에 대해 국민 정서상 민감 분야임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이번 협상에서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 측의 농수산물 검역절차 개선 요구에 대응하여 과학적·합리적 분석역량 제고 등을 통한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품목관세 인하조치 확보를 위해 미국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 정부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인하조치로서 미 정부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 시 다른 나라들과 동등한 대우를 약속하고 최혜국대우도 합의에 포함되었습니다.

끝으로 신정부 출범 후 한미정상회담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협상 타결의 의의입니다.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과 하방 압력을 해소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확보하여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관세 관련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과 국내 투자 등을 저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회피하여 성장에 미치는 하방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박스는 일본과 EU의 관세협상 결과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미 측의 관세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산업의 대응을 지원하여 하고 수출 다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미 정부의 통상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미 관세협상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및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

김영진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데요, 사실 오늘 관세협상 관련한 사안들이 과연 종결적인 형태로 한미 간의 관세협상이 마무리된 것인지 아니면 향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속에서 다시 이 문제가 최종적인 것으로 갈지에 대한 판단이 불명확한 상태 속에서 지금 정부 측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의 이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한미정상회담과 이후 최종적 협상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판단들이 지금 안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제 뉴욕타임스에서 트럼프가 관세 인하 대가로 수급 행위, 강탈 행위 등이 일대일 정상 간의 회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합의된 내용 자체가 서명이나 이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고 발표된 형태로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종적인 협상이 마무리된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측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나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발표되는 것 자체가 추후 한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나가고 최종적인 관세협상과 비관세장벽에 관한 여러 가지 협상을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부 측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범위는 어떻게 설정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할지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공개가 필요하다면 비공개도 필요한 형태 속에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위원장님과 정부 측에서 잘 판단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다음 의사진행발언 하시겠다는 분 안 계십니까? 나가셨어요?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회의를 요청했을 시에는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들 그렇게 하시겠지요?

○박수영 위원 정부 측에서 답변할 때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표에 따라서 실시하고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 출신 조승래입니다.

부총리, 협상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진 위원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공개가 되면 곤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양해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의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번 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최악은 면했다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인 것 같고 선방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지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미국과 한미 FTA를 체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FTA의 효과가 상실된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어찌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를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에 있어서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 부분들이 가장 국민들이 걱정하고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한미 FTA 체결을 통해서 사실은 한미가 공동 성장, 공동 번영을 추진해 나가던 매우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번 협상에 따라서 한미 FTA 이 관계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으로 인해서 전 품목에 대한 한미 FTA가 실효성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외국하고 비교하면 한미 FTA를 통해서 0% 관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상호관세에 15%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만약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관세 맞고 있었다면 거기에서 15%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품목, 미국의 특정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품목에 있어서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장관님, 마이크 좀 바짝 갖다 대고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승래 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번 관세협상과 관계없이 한미 FTA 효과가 여전히 발동이 되는 분야가 대표적으로 어느 분야를 얘기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미국 쪽에서 주로 적자가 큰 부분,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앞으로 반도체·의약품 이런 특정한 부분은 미국 무역진흥법 232조에 의해서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

지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이 특별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물론 15%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은 자기들의 관세에서 15%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한미 FTA 효과가 살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어쨌든 한미 FTA 효과라는 것이 이게 없었을 경우에 기존의 관세 플러스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 상대적 비교우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런 측면의 말씀이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조승래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가장 관심을 받았던 부분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마스가라는 거였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공직자들의 상당한 창의성이 발휘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는 누가 만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마 산업부에서 주로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미국 쪽에서는 당초에는 조선업 분야의 신조 건설하는 부분만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신조 건설 그리고 MRO(유지·보수), 거기다가 조선업 기자재 또 네 번째로는 향후 AI를 접목한 선박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AI를 활용한 휴머노이드 용접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은 토털 패키지로 제안을 하니까 미국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1500억 불 정도가 더 갈 거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미국의 상무부에서도 깜짝 놀란 거지요. 한국이 해 주는 게 단순히 무슨 도크를 몇 개 짓는 게 아니고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이게 미국한테는 굉장히, 이걸 놓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국 상무부장관을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해외,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조선업 투자가 축소되지 않을 것이냐 또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냐, 그에 따라서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인데 부총리의 답변을 보면 크게 봐서 국내에 있는 조선업과 미국에 투자되는 조선업이 서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관점으로 설계를 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왜냐면요 지금 물리적으로 우리가 조선업을 잘 만드는데 이걸 AI하고 접목을 한다든지,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AI를 적용한 진짜 조선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한다면 한국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협상을 소극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해서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번 기회에 조선업을 중국이든 다른 어느 나라가 못 쫓아올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으로 업그레이드하자.

그런데 미국에 가서 했을 때도, 미국은 사실은 조선업에 대한 인프라가 진짜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은 잘 정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선기자재가 수출도 많이 하고, 따라가서 거기서 투자도 해서 돈도 벌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본다면, 우리 인력이 미국에 가서 취업도 하게 되고요.

○조승래 위원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 적극적인 개념으로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리고 실제로 관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어찌 보면 대기업들은 어쨌든 예측 가능성이 분명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품 등 중견·중소기업들의 위축이 좀 걱정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한테 제안한 게 조선업 기자재도 같이 하자. 그러면 중소·중견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에는 조선업 기자재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단계적으로는 조선업 기자재를 위한 공장을 만든다 했을 때 우리 중소기업, 우리 중견기업들이 거기에 가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부품도 수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중기중앙회 회장님을 만났더니 ‘진짜 잘했다’. 중소·중견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이언스되는, 대기업이 앞장서고 중소·중견기업이 이렇게 같이 가고 여기에다가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붙여서 한국이 조선업의 새로운 비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한다면 진짜 세계 1등 가는 조선업 부흥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민간기업들하고 협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부총리님, 8월 1일이라는 피 말리는 데드라인에서 협상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관세 질의에 앞서서 최근에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잠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어제오늘 언론상에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판단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하향하는 세제개편안이 발표가 되면서 동학개미들이 난리가 났고요. 얼마 전에 소비쿠폰 발행을 해서 뭔가 모르게 우리가 소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고 다들 생각했는데 이게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상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화들짝 놀라게 된 민주당에서는 여론의 향방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한쪽으로는 코스피5000 위원회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세제개편안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부총리님 생각에는 대주주 요건 향하를 철회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저희 정부도 코스피 밸류업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펴고 있고요. 특히 대주주들이라는 게, 지금 주식을 투자하는 국민들이 한 14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인선 위원** 예, 1000만이 넘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물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소중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수보다는 조금……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감안했고요. 저희들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기는 들을 겁니다. 듣고 판단을 할 건데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서 최대한……

○**이인선 위원** 가야 되는 길이면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어쨌든 1400만의 동학개미들의 상황도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동학개미들이…… 이게 종목당 50억에서 종목당 10억으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5.79 종목을 우리 국민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만약 50억씩 한도를 주면 250억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점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최근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또 우울감들을 국민이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관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면 조금 전 보고에도 했습니다마는 4500억 불, 620조 가량이, 그야말로 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그런 국부가 미국 입맛에 따라서 제공이 되면서 결국은 한미 FTA가, 지금까지의 그런 조건들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는데 일본과 똑같이 15%를 선방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는 FTA로 제로였고 일본은 2.5%였다고요. 그래서 일본하고 똑같이 된 것에 대해서 자화자찬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36%고 무역의존도가 87%로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18%고 무역의존도가 55%기 때문에 내수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하여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지켜 온 자유무역체제가 보호무역으로 이렇게 회귀를 하면서 그 피해에 고스란히 우리가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돌이켜 보면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에 이어서 한미 FTA 노력으로 그때 관세가 0%였고 그때 광우병 선동이다, 굴욕 외교다, 외교 참사다, 사대 외교다 다들 난리가 났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그렇게 반대하고 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결국 관세 15%는 국익을 챙겼다면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들 어디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모습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그야말로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급의 동상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관세는 굉장히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을 거치면서 잘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밀려오니깐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여기 내용 보면 부총리님은 셀프 칭찬 와중에도 그래도 본인은 자동차 관세 12.5% 관철을 못 해서 아쉽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대미 주력 수출품의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사실은 48%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중에서 자동차산업이 지금 70%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차량 절반이, 지금 123만 대 정도를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굉장히 어렵게 협상은 했습니다마는 별 대가 없이 2.5%를 미국에 헌납한 것처럼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부품 제조업 비중이 1위인, 핵심 산업인,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요. 완성차 40%가 울산·부산·창원에서 생산되고 부품은 부산·경남·대구가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은 타격이 지금 덜합니다. 왜냐하면 그 손실을 벤더사에 전가하면 되고 또한 미국의 현지생산을 늘리면 됩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지금 한국산 차를 미국에 57%를 팔고 있는 데 반해서 일본 토요타는 25%, 혼다는 1%입니다. 거의 현지생산을 하고 있는데, 결국 대기업은 그야말로 미국으로 대탈출을 하게 되면 남아 있는 영세 협력

사들은 위기가 올 테고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분들에게 과연 15%가 잘한 협상이냐, ‘안심해라. 걱정 마라’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앞서서 조만간 한미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텐데 그때 다가올 주한미군 분담금이라든지 이번에 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협상에 올라가겠지요. 그래서 부총리님 보시기에는, 벌써 이렇게 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특히 우리 자동차기업이나 부품기업들한테 해 주실 말씀이 뭘지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 부분은 우리 수출의 주력산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할 때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12.5%로 가야 된다, 우리는 FTA를 체결한 국가니까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하고 차별성을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만 제가 역부족해서 관철을 못시킨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날 타결이 되지 않았더라면, 제가 30일 날 협상을 했었는데 바로 이틀 지나면 우리는 25%로 가야 되는 그런 중압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쟁상대자인 EU나 일본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데 15%인데 우리는 25% 했을 때 이것 큰일났다 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히 부품업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또 부품업체와 소통도 강화해서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AI를 활용한 AI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기업이 앞장서게 하고 정부가 도와줘서 경쟁력을 통해 이 파고를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인선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역경제가 지금은 다 죽었다고 다들 한숨을 쉬고 있으니까 좀 안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방금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부총리님이 송구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저희한테 오늘 주신 관세협상 결과 보고에도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보고서에는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결과를 확보했다,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유지했다라는 자화자찬식의 설명을 써 놓으시고 정작 이 자리에 오셔서 가지고 부총리께서는 ‘송구하다’. 이것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도 방금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적하려고 했어요. 우리 한국 자동차는 원래 관세 0%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 2.5%였지요. 12.5% 저희가

방어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여기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2.5%였는데 10%로 7.5%밖에 인상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자동차가 기존에 갖고 있던 관세 경쟁력이라는 것이 훼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대표인 저희 국회에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생각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제가 절대로 자화자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 12.5%를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깐요 실무자인 상무부장관은 ‘그러면 하지 마라. 25%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이것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하람 위원** 당연히 상대방은 압박하지요. 물론 부총리님이 고생 안 하셨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국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말씀하시는 것과 보고 자료 내용이 달라서는 곤란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미 투자 규모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3500억 달러 이렇게 하니깐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대한민국이 1980~2024년, 그러니까 45년 동안 대미 직접투자를 한 액수가 총 얼마인지 부총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천하람 위원** 그게 2453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45년 동안 대미 투자를 한 것보다 1000억이 더 많고요. 그리고 지난 45년 동안 대미 투자액이라는 것이 투자하고 대출을 다 합친 규모입니다. 지난 45년 동안 했던 것보다 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3500억 달러의 투자라고 하는 것을 얼마 동안, 얼마의 기간 중에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연간 배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하는 겁니까? 이것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협상을 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구성이 세 가지로 됩니다. 출자도 있고 대출도 있고 보증도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보증도 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하람 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대충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많은 부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대강의 타임라인도 짚 게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이 아직은 없고요. 없고,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 조선소를 짓는다 했을 때 부지를 찾아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여기다가 터파기를 해야 되고 건설을 해야 되고 시간을 따졌을 때는……

○**천하람 위원** 걸리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시간은 아마 좀 걸리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하지만 이것을 또 굳이 내놓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면 투자·대출·보증 이 세 가지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 부분도 합의된 게 없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 부분 합의된 게 전혀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냥 ‘투자·대출·보증으로 구성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 식이면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랑 민간기업이 어느 정도 분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계획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 부분은 아마 정부 부분의 어떤 투자·보증·대출로 봐야 됩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면 정부가 대출하거나 보증해 주는 게 3500억 달러라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맞습니다.

○천하람 위원 민간기업 참여 없이 정부가 순수하게 보증하거나 대출하는 게 이 정도 규모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천하람 위원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렇지만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속도에 따라서 진행, 돈이 투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천하람 위원 아무튼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 45년 동안 했던 투자·대출·보증 이런 걸 포함한 것보다 더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너무 포괄적으로 계획 없이, 지금 아무리 협상 단계라지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요즘 보면 자꾸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을 한국에서 사업하기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이번에 대미 투자라는 것도 결국, 아까 조승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쪽의 일자리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가 미국에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게다가 지금 국내 법제상으로도 노란봉투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법률들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게 조선업이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산업 분야가 됐든 미국과의 관세협상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 아니면 1·2차 벤더 포함해서 민간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확 늘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려면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천하람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되는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이렇게 해외에 투자할 때도 그것을 이유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 간 협상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해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조가 거기에 대해서도 파업을 한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샌드위치로 끼여 가지고 뭐 어찌라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지금 노란봉투법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노조에서도 국익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하람 위원** 아니, 그건 너무 나이브한 말씀이지요.

노조 입장에서 해외로 생산 라인 옮기고 투자를 그쪽에서 해서 일자리가 그쪽에 생기면, 현대차든 삼성전자든 라인 옮기고 하면 당연히 다 반발하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동차 품종을 외국에서 생산하는 것만 해도 노조랑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 일자리 뺏기게 생겼는데 노조에서 그러면 해외투자 늘리는 것 파업 안 하겠습니까? 국익이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겠다 그러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이걸 안 한다면 당장 우리가 25% 맞아 가지고 당장 손실이 발생하는데……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상황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란봉투법을 지금 추진하는 게 이 관세협상 때문에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현재 상황이란 맞는 거지요.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또 정부 내부에서 더 구체적인 매뉴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대응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두려워해서 안 하면 당장 우리 물건이 안 팔려서 당장 피해가 온다는 점을 좀……

○**천하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관세협상은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영상 판단, 해외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 파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지금 열어 두는 게 맞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노조에서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광주 동남을 안도걸입니다.

먼저 부총리님, 이번에 미국과의 관세협상 수고 많으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감사합니다.

○**안도걸 위원** 지금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정부가 협상력을 집중해서 이번에 일본이나 EU 같은 주요 경쟁국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얻어 냈다 저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일선에서 뒷받침해 준 우리 실무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세협상 타결 영향으로 부총리님 말씀하셨듯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점은 큼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이 있지요. 수출은 어느 정도 최소화했지만 타격이 올 것이고 또 경제성장률도 0.1~0.2% 정도 하방 요인으로 분

명히 작용을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협상 결과와 관련해 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게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우리 자동차 관세 아까 2.5%—지금 계속 나오네요—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FTA의 어떤 우위를 지키지 못했더라는 점이 좀 아쉽다 하고 부총리께서도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산업이 굉장히 민감한 품목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간판 산업일 것이고. 우리나라 수출에서 자동차가 대미 수출에서 33%입니다. 그리고 대미 무역흑자액의 63%를 지금 자동차 분야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취약한 입장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비교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2.5%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일본이 양보한 것 이상의 추가적인 양보가 있었으면 아마 미국이 재고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 15%를 지켜 내기 위해서 쌀시장 개방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좀 했던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민감 산업에 대해서 우리는 양보할 수는 없지요. 그것을 지켜 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어떤 전략적 교환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협상…… 이번에 저희들이 한 패키지로 좀 봐 주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일본을 압박해 가지고 개방시킨 쌀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켜 낸 측면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만약에 우리가 풀었더라면 또 다른 쪽에서 뭔가 얻을 수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 협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전략적인 딜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를 다시 복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현재 분명히 살아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상호관세 조치로 사실상 FTA는 무력화되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또 이걸 우리가 WTO에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현재 WTO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FTA의 어느 정도의 복원력을 가져오려고 한다면 상황의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역시 정치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출산업의 어떤 다변화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레버리지를 높여야만이 미국하고 대등한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FTA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대미 투자 문제입니다.

먼저 약간 규모가 크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GDP 비교해 가지고,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좀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대미 수출과 흑자액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대미 수출액이라든가 무역흑자에 대비한 투자 규모를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작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규모도 있겠지만 부총리 말씀하셨듯이 이것 비용이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발상을 하면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미국,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공급망이 다시 재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입지를 선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한미 간의 기술 산업의 전략적 동맹이 맺어진다면 향후 세계경제 판도에서 우리의 입지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요.

지금 대미 투자 구성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가 전개될 거라고 보거든요. 상당 부분 투자 주체에 있어서 국내 대기업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선업 1500억 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에 투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3500억 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내 대기업의 참여, 역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사실은 미국에는 조선업 관련한 생태계가 진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아마도, 우리가 또 돈을 대고 이러니까 저는 우리 기업이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미국하고 협상할 때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의 현지 FDI지요, 직접투자가 여기에 선행을 하고 그것을 우리 정책금융기관들이, 수은이나 무보나 산은이 뒷받침하는 이런 형태로 대미 투자가 구성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국익 차원에서 관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내의 산업공동화 문제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 대응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하고의 연계성을 최대한 높여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글로벌공급망을 만들고 국내의 글로벌공급망이 서로 상호 선순환하는 그런 형태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필요한 게 저는 R&D하고 고부가가치 핵심 공정은 반드시 국내에 그 기지를 뒹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에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할 때 정부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이 제공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때 어느 정도 조건을 좀 붙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미 투자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하겠지만 대미 투자와 연계된 국내 투자도 하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건부로 정책금융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아주 치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국내 산업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어차피 대미 투자를 해야 된다면 이 기회를 미국과 협업을 통해서 조선업을 업그레이드시킨다 하는 그런 전략으로 하고요. 그 과정에서도 아마 기술 체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조선업 하는 분들이 훨씬 많이 체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체화된 기술을 가져와서 국내에서 또 경쟁력을 키우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대책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해외에 있는 기업도 유치하도록 하고 또 국내에서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R&D 기술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내에서 전략적으로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이번에 대미 투자가 한국한테 도움이 되게, 한국이 글로벌 일등이 되는 그런 길을 가는데 미국하고 얼라이언스를 통해 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그리고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해서 결국은 한국이 위너가 될 수 있는,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관리관계서 업무보고해 주실 때 ‘쌀, 소고기, 과채류 등에 대한 강한 시장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어를 하겠다’라고 보고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보고하는 내용에서는 쌀, 소고기만 얘기를 했거든요. 과채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간지를 보니까 미국산 사과·배 수입은 빨라질 것이라는 보도자료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드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적인, 확인적인 측면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과채류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개방했다는 게 진짜 없고요. 절차상 AI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이렇게 과학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보고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8단계인데요 미국에서는 시간이 몇십 년씩 걸리니까 너무 느리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려면 감염병이라든지 전염병 정보가 우리한테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 쪽에서 하여튼 그 절차를 과학화·합리화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은 AI를 활용한다든지 또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이걸 더 늘리겠다 이걸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따가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 내용을 좀 잡아 준 거고요. 그 얘기는 아무리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곧 개방이 임박하다는 얘기로 느껴집니다.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이번에 구윤철 부총리님과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많은 수고를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상당히 역부족이었고 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이런 걸 볼 때 스스로도 결국은 이 협상 자체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 볼 때도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 측면에서 한미 FTA로 누려 왔던 어떤 우월적 지위가 이번에 사실은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경제에 어떤 주름살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한 대미 투자 관계에서도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상당히 과도하게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GDP의 한 10% 수준, EU 같은 경우도 한 7% 수준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 이상 그런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조선업 협력이라든지 반도체, 다른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러한 엄청난 액수를 약속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운용에 또 기업들의 어떤 행보에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쌀이나 소고기, 과채류 개방에 대해서도 계속 뉴스가 나오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뭔가 정부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들고.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저는 이것이 실패한 협상이었다 또 상당히 굴욕적인 인상도 주는 협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은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에서의 실패 또 이재명 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전직 중국대사를 찾아가서 세세 외교를 언급한다든지 이런 불필요한 행보들을 하고 또한 임기 초에 중국 전승절 행사의 참석을 검토한다는 식으로 계속 그 뉴스가 나왔고, 지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상당히 친중 행보를 한다는 것은 미국의 정가나 외교가에서는 어떤 하나의 현 정부에 대한 인식으로 이미 자리가 고착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6월 G7 정상회의 당시에도 일방적으로 사실상 한미정상회담이 불발이 되고 그 이후에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위성락 안보실장의 미팅도 사실상 일방적으로 철회가 되고 또 우리나라 재무·통상 관련 장관 미팅도 사실상 7월 달에 불발이 됐지요.

그래서 한국이 미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상당히 패싱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너무 다급하게, 너무 조급하게 굴욕적으로 이 협상에 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상당히 굴욕적으로 경쟁국인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기존에 우리가 누렸던 경쟁력 우위를 완전히 상실당함으로써 향후 경제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지금 IMF도 세계경제 전반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경제성장률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유독 경제성장률 전망을 1%에서 0.8%로 내렸어요. 아시아개발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1.5에서 지금 0.8로 내린 상황인데, 저간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볼 때 현 정부가 외교, 국제관계, 대미 외교, 한미동맹 이런 차원에서 어떤 실패의 길로 감으로써 결국은 임기 초에 대미 관세협상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인데 향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께서 이재명 정부가 대미 외교에 실패했다, 그 다음에 이번 협상은 굴욕적이고 또……

○윤영석 위원 굴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이 사안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여러 가지로 실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6월 달에 새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때 일본과 EU는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물론 기재위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를 빨리해 주셔서 제가 미국을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해서 협상을 하는데 29일 날 가지 않았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3일, 위원님. 그동안에 만약에 협상을 하지 않았더라면……

○윤영석 위원 지금 질의 시간이 조금 그래서……

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께서는 할 역할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제부총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현 정부의 기본적인 성향이라든지 미국과의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가 한미 관계에서 상당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현 상황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윤철 부총리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역부족.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고 평가를 하시지만 현 상황이 최악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 달라는 것이고, 지금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성공했다고 하시는 말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명보다는 향후에 한미 관계라든지 이런 국제관계를, 사실은 경제 협상도 국제관계, 한미 관계라는 큰 외교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영석 위원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해서도, 향후 경제운용에도 외교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제운용을 위해서는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시고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경제정책을 펼쳐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뵈니까 ‘정상회담을 다음 주에 하자’ 진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고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윤영석 위원 아마 이번 굴욕적인 협상 결과에 따른 일부 변화가 조금 있을지 모르지

만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굴욕적인 것 진짜 아닙니다. 저희들은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은 협상 시간이 짧았습니다,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새 정부 바뀌어서 시간 따져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를 진짜 줄기차게 매달려서 협상을, 국민들 보시기에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소나기를 피했다,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이렇게……

○윤영석 위원 구윤철 부총리님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어쨌거나 하여튼 위원님 이게 다 정부의 공통적인 노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려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미 투자에 있어서 저희들이 과도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3500억 불 중에서 1500억 불은 우리가 조선에 완전히 얼라이언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한국만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시고 나머지 분야도 반도체, 이차전지 이런 분야가 한국에 우월점이 있는 분야입니다. 미국이 5500억 불도, 아마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하라고 했을 때 한국한테는 이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또 영국이, 6000억 불을 해야 됩니다, EU가. 그 부분도 아마 이런 분야에 했을 때 영국보다는 한국에 장점이 있다 이렇게 따졌을 때……

위원님, 힘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 한국이 적극적으로 갔을 때는 우리 돈 3500억 불에다가 일본 것 5500억 불, EU 것 6000억 불까지도 이쪽으로 갔을 때 누가 워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힘을 실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오히려 기회로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부총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준비할 기간도 부족하셨을 텐데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는 관세협상에서 우리 기재부 공무원들 함께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지금 무역 질서들을 살펴보면 FTA와 WTO 체제는 사실상 기존 질서는 흔들렸다. 그리고 이 체제하에서 이제 각국이 어떻게 생존하느냐의 문제가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FTA 체결 국가가 미국 빼 놓고 어디들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한국을 빼 놓고요? 일본도 아니고 EU도 아닙니다.

○김영환 위원 아니, 한국의 FTA 체결 국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칠레도 있고요.

○김영환 위원 사실은 이런 질서 변화의 근본은 미국 제조업의 붕괴 그리고 일자리 부족, 지난 40년 동안 진행된 미국의 생산시설 부족, 다 해외로 나갔지 않습니까, 심지어 애플조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공동화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 이 질서를 이제 거의 파괴 수준으로 만들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이 협상하게 된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해방의 날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EU나 상호관세, 품목관세를 맞은 각국은 정말 비참한, 굴욕적인 협상 과정에 다 동참하게 됐던 걸로 저는 이해하

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가 이렇게 부과가 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당연히 낮아지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영환 위원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고 총수요가 이제 부족하게 되니까 그것에 따른 대한민국 경제에 여파도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각국의 어떤 수출 여파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 중에, 미국에 집중된 투자가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영환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런 패권 질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은 좀 필요하다. 이를테면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협상이 진행됐지만 EU와의 관계 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척했던 동남아 시장과의 관계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뜨렸던 중국 시장 그다음에 전쟁 중이지만 러시아 시장, 인도 이런 시장과의 어떤 수출 전략을 좀 새 판으로 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느 특정 국가에 집중된 수출 전략은 대한민국의 생존의 길에서도 결코 이롭지 않다라는 말씀 하나 올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7월 수출입 좀 봤는데 중국이 또 떨어졌어요. 사실은 2000년 이후에 무역수지 흑자의 80%가 중국으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나온 게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과연 중국 시장에 어떻게 새롭게 우리가 다가서야 될지 이 문제가 저희로서는 또 관건이에요. 그리고 중국 수출 비중이 점차 축소가 됐고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 물량들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략을 좀 새로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말씀 좀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실력을 키우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시장에서 수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또 집중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이 너무 과도한 흑자를 낸다고 한국을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깐 수출 다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하고 얼라이언스를 통해 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아마 중국 수출이 떨어진다는 거는 중국이 그만큼 올라왔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국의 국가전략을 개편해야지만 한국에 어떤 비전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된 부담이 있는 게 먼저 한 발 앞서가는 전략들이 필요해요. 중국이 사실은 기술력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 앞 단계에서 저희들이 제조업 역량이나 R&D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한 단계 올라와야 거기서 리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전략들에 기재부의 책임이 좀 막중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제조업 공동화현상의 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내 생산시설 축소는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의 전체적인 투

자의 규모, 실링은 우리가 무한대로 늘려 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한정된 투자 실링에서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느냐의 문제인데 첫 번째는 국내 생산시설 투자 감소가 좀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기재부 생각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국내 생산시설들의 업그레이드. 제가 현대제철을 좀 가 봤는데요, 현대제철 몇 개 라인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생산을 안 해요. 구조조정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철강뿐만이 아니고 제조업 전반에 대해서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좋다고 해서 투자 규모가 그쪽에서 일어날 수 있고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덜 진행되면 국내 생산시설이 경쟁력을 잃어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세제 플러스 다양한 정책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균형성장입니다. 이제는 내수 소비 기반……

○위원장 임이자 1분 더 주세요.

질문이 너무 좋습니다.

○김영환 위원 감사합니다.

그 내수 기반 혹은 수출의 종목들도 이제 다양화됐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문화산업을 수출하지만, K-콘텐츠를 수출하지만 이를테면 장치산업들도 많이 필요해요. 아레나 같은 것, BTS 한번 공연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천공항, 김포공항을 통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의 하나의 품목이기는 하지만 국내에 또 추가적으로 투자해야 될 그런 경쟁력 있는 산업들에 대한 전략적인 경제정책 방향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말씀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R&D나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아마 이번 새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보시면 제가 진짜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중심으로 해서 초혁신 기술 경제로 갈 수 있는 초석을 놓기 위해서 내년도 정책 방향 그리고 예산해서 이렇게 얼라이언스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조 중심으로 갔을 때, 미국 중심으로 가다 보면 국내는 공동화 이런 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오히려 일단 공동화보다는 국내도 퀄리티를 높이겠다. 한번 따져 보십시오. 반도체, HBM 생산하는 나라가 3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강하게 시키면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차전지,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보자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접니다. 이것 미국하고 얼라이언스해서 부가가치를 확 높이면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더 잘나갈 수가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우리가 공동화되니까 큰일 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진짜 고부가가치를 높여 가지고 세계시장을 우리가 다 잡자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개념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균형성장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제조업뿐만이 아니고 K-컬처, 한국의 식품, 한국의 문화, 한국의 화장품—화장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이런 부분에 또 선택과 집중을 해서 R&D를 통해서 퀄리티를 높이고 가격은 싼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짜 한국 경제, 과거하고 다르게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해 보자, 국민

전체가 모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6단체 회장님들을 만나서 ‘기업이 중심이 돼라. 기업이 나서십시오’ 그래서 ‘모든 정부, 기재부도 다 도와드리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 재정, 인력, 규제완화 그리고 더 할 수 있으면 제가 가서 춤이라도 춰 주겠다 이런 식의 각오를 가지고 진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앞장서서 한국을 진짜 위대하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있는 본 위원장이 참 답답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우리 부총리께서 임명 직후에 미국에 날아가서 짧은 시간 내에 협상을 타결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그나마 선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어떤 무역수지 적자 문제 또 자국 내 어떤 산업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간에 형성되어 있었던 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를 아주 난폭하게 흔든 문제, 더구나 우리는 미국과 혈맹관계 아닙니까? 군사동맹을 넘어서서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고 더구나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자유무역협정, 무관세협정까지 체결돼 있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들이밀어 가지고 보편적으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건 정말 횡포에 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분명하다 하더라도 이런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국민과 함께 한목소리로 대항해 줬는가, 정작 미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목소리 내지 못하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만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이렇게 그냥 주장만 한 게 아닌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 왔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야말로 타국에 가서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협상을 하느라고 정말 애쓰셨다. 그런 정부의 노력에 비해서 국내 정치권이나 국내에서는 그런 정부의 노력을 충분하게 뒷받침하지 못했다 이런 자괴감이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야말로 약소국이 겪어야 되는 비애인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은 제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측이 이번 통상협상이 관세 문제에만 국한되거나 통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통상과 안보가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협상될 것이다 또 그것이 어찌면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 틀일 수 있겠다 이런 관측도 했는데 이번 결과를 보면 안보 문제 이런 문제는 협상에서는 다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번에는 통상 문제만 국한해서, 8월 1일까지 뭔가 협상의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25% 관세를 맞기 때문에 저희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했고 아마 향후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미국하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진성준 위원 그러면 미국이 그동안에 요구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국방비를 늘리는 문제라든지 방위비분담금을 더 증액해야 된다는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협상을

앞두고 있는 과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도 물밑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민이 또 모든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나서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 확인해 봅시다.

상호관세 문제는 어쨌든 아쉽기는 하지만 15%로 타결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진성준 위원 그런데 여전히 개별 품목에 매겨지는 품목관세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또 앞으로 바이오의약품 이런 데에도 매겨진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진성준 위원 그런데 바이오, 반도체 이런 데서는 최혜국대우를 약속받았다고 하는데 최혜국대우라는 말이 기존에 FTA처럼 무관세다 이 얘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협상해 봐서 그중에 가장 나은 대우를 해 주겠다 이런 정도에 불과한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맞습니다.

○진성준 위원 품목관세 문제는 앞으로 더 협상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품목관세가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구리 이런 부분인데 지금 자동차는 가장 많이 잘 받은 데가 15%고요, 그다음 철강하고 구리,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50%로 미국이 모든 나라에 동등하게 이렇게 규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이오나 기타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하여튼 최고로 잘 대접해줬다 이렇게 커밋먼트(commitment) 받은 측면에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불리하지는 않다는 측면에서 저희들 실력을 키워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철강이나 알루미늄, 구리 이런 분야에서는 추가 협상이 있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미국에서 강력하게 5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다음에 비관세장벽으로 거론했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이번 통상협상 과정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또 더 추가 협상을 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특히 저희들이 미국 측에 설명한 게 ‘사실 FTA를 통해 가지고 99.7%가 개방돼 있다’ 이렇게 상무장관한테 얘기하니까 상무장관은 ‘그러면 몇 개 정도가 안 되느냐’, ‘우리가 따져 보니까 몇 개 안 되는 부분만 남아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또 USTR이라는 조직은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절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번에 가서도 하여튼 USTR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미국이 제기하는 이른바 비관세장벽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비관세장벽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에 최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부에 대해서는, 미국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협상을 좀 더 하고 설득을 시키고 납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크게 군사안보 문제와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비관세장벽이라고 미국이 얘기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미국하고 의제에 대해서 논의해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또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가 이 관세협상에 나가면서 저는 미국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우리가 실력이 1등이라면 미국이 관세를 아무리 때린다 한들 우리 것을 안 사고는 건딜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진짜 아주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이든, 자동차면 자동차, 우리가 세계 1등의 자동차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지 그냥 지금처럼 자동차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노력으로는 진짜 앞으로 더 무역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강력하게 추격하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어려우니까 진짜 세계 최고의 자동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세계 최고의 이차전지 이런 식의 노력을 더 가일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제가 힘을 받아서 한번 진짜 열심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훈 위원 부총리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협상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국민에게 더 추가적으로 알릴 내용이 남아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현재까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제가 협상한 것은 100%입니다.

○박성훈 위원 일각에서는 현재 결정된 것은 15%의 상호관세율과 3500억 불에 달하는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 이것 외에 나머지 비관세장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미정상회담 시에 다시 의제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제를 제시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에 대해서 협의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성훈 위원 결국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디지털이라든지 AI 또 앞에서 말씀하신 쌀이라든지 소고기와 같은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도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무장관이나 USTR에 최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훈 위원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투명하게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절차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은데요. 현재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불에 대한 통제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통제권이라고 한다면 한미가, 미국이 지정한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 반도체, 이차전지, 에너지 이런 분야는 우리가 가야 될 경제안보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미국이 투자를 하라고 할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한다면 한국에도 국익에 결코 도움……

○박성훈 위원 부총리님, 구체적으로 펀드 운용을 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GP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성훈 위원 GP를 누가 맡는 구조가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하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 좀 협상을 해야 됩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결국 총액 규모만 정해져 있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고 수익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된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얘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하고 같은 방식이고 EU하고도 같은 방식이거든요. 한국도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실제 수익배분 구조에 대해서 90%를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라고 하면 90%의 수익을 어느 특정인이 가져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약탈적인 수익배분 구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게 현재의 상호관세율을 뽑아내고 그리고 산식을 구성하는 이런 구조는 누가 구상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90% 나온 게 일본이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나왔습니다.

○박성훈 위원 맞습니다. 상호관세율을 산출하고 그리고 그 산출하는 산식 등은 일본이 만들어 낸 거지요. 결국 일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그것도 일본도 지금 90%, 10%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미국하고 틀리다는 점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박성훈 위원 3500억 불 대미 투자 재원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3500억 불을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로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정부가 하는 부분은 맞고요. 다만 그 구성 내용에 있어서는 출자금의 얼마가 될지, 대출 보증으로 갈지 또 대출로 갈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협상을 통해서……

○박성훈 위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

기하면 결국 이것은 직접투자를 의미하거든요. 아마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단순 보증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출자 형태의 투자펀드 조성이 불가피하다. 결국 이것을 누가 출자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출자는, 어차피 한국이 3500억 불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 출자가 될지 그것은 협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박성훈 위원 시장에서는 결국 이게 특수은행채 발행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스프레드 확대 압력으로도 작용될 수도 있고요 채권시장에 또 새로운 폭탄을 던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 채권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 조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저희들이 또 방안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구성 내역이 어느 정도 협상되고 나면 정부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렇습니다.

아마 수출입은행채 중심으로 발행 압력이 강화될 거고 현재 무보가 올해 지원하고 있는 지원 총액이 약 700억 불 정도 규모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아니요, 올해 무보 지원 총액이 282조 원이고요, 만일에 지금 형태로 3500억 불을 5년에 나눠서 지원한다 그러면 약 700억 불이 될 텐데 무보 1년 지원 총액의 약 38% 정도 규모가 됩니다. 저는 도저히 불가능한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성장이 완화되고 또 고용 악화라는 악순환의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비관세장벽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자동차와 쌀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히스토리컬 마켓 액세스(historic market acces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TRQ, 쌀에 대해서 저율관세할당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성훈 위원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럼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저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게 TRQ가 유지된 것을 완전하게 개방됐다라고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산 쌀 같은 경우가 TRQ 물량 40만 8000t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13만 t입니다.

○박성훈 위원 맞습니다. 약 한 32.4%지요. 결국은 이 32.4%의 쌀에 대해서는, 미국산 쌀에 대해서는 5%의 저율관세가 부과되는데 앞으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도 미국산 쌀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협상에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상을 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13만 2000t을 넘어서는 쌀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513%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씀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의 그 틀은 유지가 됩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백악관 측에서는 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개방을 했더라는 표현을 하면서 완전 시장 개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관세협상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완전 개방에 TRQ라는 단어가 부합하지 않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미국 측 간에 분명히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한미정상회담 사이에 어떤 의제로서 다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국민, 특히나 농민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정부가 투명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그런 우려나 오해가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했을 때 쌀 얘기가 없었습니다. 자꾸 국내에서 쌀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진짜 미국이 또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를 믿어 주셔야지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하고 할 때는, 일본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자꾸 이것을 논란을 시키면 오히려 미국이 깨닫고 아, 이것 한국에서 자꾸 된다고 하니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짜 이것은 국익을 생각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성훈 위원 결국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역사적인 개방을 쌀 시장에 했다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것 의도는 모르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저희들은 그게 없었다는 것, 이것은 팩트입니다.

○박성훈 위원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상 위원 미국과 관세협상, 통상협상 관련해서요.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이고요 또 트럼프 정부도 한 3년여 더 넘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양국이 이 관련한 논의를 앞으로 계속해 나갈 텐데, 이게 바둑으로 치면 바둑 한판이 완전히 이번에 끝난 겁니까 아니면 이제 막 두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두어 나가야 되나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전체적인 관세는 잡혀져 있지 않을 것 같고 세부적으로 집 싸움하고 이럴 때는, 마무리 수 할 때는 약간은 있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전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양국에서 이렇게 협상을 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련한 협상을 했을 때 소위 저희가 승패를 가를 때 완승이다, 낙승이다, 신승이다 여러 분류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완승을 거두거나 낙승을 거둘 수가 있나요? 어떻게 협상을 하면 되나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쉽지 않은 협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렇다면 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도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계획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번에 조선업, 마스가라고 이게 미국한테도 도움이 되고 한국한테도 도움이 되는 이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 2000억 불에 대해서도 저는 또 다른 협상 카드를, 미국한테 도움이 되고 한국한테 도움이 되는 걸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고…… 바둑의 한두 수로 바로 결정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정말 매 수 매 수 신중하고 또 검토하고, 다음 수로 앞에 있는 판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런 과정들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바둑을 둘 때 한 수를 놓을 때는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수를 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수를 놓을 때마다 이게 몇 수로 해서 어떻게 되는 게임이 될 것인지를 예상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여간 지향은 우리나라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겠습시다만 또 미국 입장을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도 본인들 이익이 되는 쪽으로 또 하려고 할 테니까요. 결국 그 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기재부 중심으로, 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실력을 그리고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관련해서 나온 말씀 중에 미국의 검역 절차 개선에 대한 협의 부분 의견을 조금 여쭙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농식품부장관이나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부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요, 국민들께서 혹여나 조금이라도 오해가 없게 관련해서 장관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미국하고 이번에 논의된 것은 우리들이 추가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여덟 단계로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과학화·합리화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어떤 생각이냐 하면 AI를 활용해서 광범위한 자료를, 미국보다는 우리가 더 정확한 자료를, 더 정확하게 판단은 해 줘야 됩니다. 미국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한국이 자꾸 질질 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딜레이를 하고 있다. 우리는 그게 아니다, 너희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정보를 줘라. 그래서 그 정보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은 우리가 갖추겠다, 이게 저희들이 얘기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이 관련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를 하는 과정과 결과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럼요.

○최기상 위원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미국 측에 신뢰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최기상 위원 그런 접점을 꼭 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결과 말씀 중에 맨 마지막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우리 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및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선제적·능동적 대응계획’이라는 표현을 말미에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것들은 오늘 말씀을 채 못 하시겠지만 이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관련한 준비를 앞으로 기재부 차원이나 정부 관련한 부처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시고 그 관련해서 국회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한번 짚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이번에 관세협상을 하고 느낀 점은 우리가 3500억 불을 미국한테 물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끌려가서 그냥 소극적으로…… 우리가 끌려가서 큰일 났다는 게 아니고 이왕 투자하는 거 한국한테 강점 있는 분야가, 다행히도 강점 있는 분야입니다. 반도체 하겠다. 누가 제일 강점 있습니까? 이차전지 하겠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누가 강점 있습니까? 바이오, 한국 굉장히 뛰어납니다.

얼마나 이게, 오히려 미국이 한국한테 기회를 준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만이 아니고 일본 5500억 불, EU 6000억 불, 1조 달러가 넘는 이 돈이, 또 이런 분야에 투자가 되면 누가 워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가자. 그리고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더 낼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분야도 지금 우리가 조선업처럼 수직계열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까지 낸다면 미국이 ‘이것 미국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한국한테 도움이 돼요. 이런 식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관련한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관세협상을 통해서 혹시 국내에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시거나 관련해서 걱정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방금 선제적·능동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었다. 그리고 앞으로 우려하신 바를 정부랑 계속 협의하시면서 없도록 만들겠다는 부분이 기재부 혹은 다른 부처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기상 위원 준비하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최기상 위원 저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늘 능동적이거나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동적이거나 방어적일 때가 있겠습니다만 늘 그 수동성과 방어성 속에는 능동성과 공격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늘 동시에 고려하시는 그런 능력과 실력을 갖추셔서 앞으로 과정을 계속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구윤철 부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대미 관세협상 관련한 평가를 굴욕적 협상이라고 폄하하고 평가하기 보다는 미국의 협상 방식이 과거의 WTO 체제 그리고 한미FTA 및 세계무역의 흐름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패권적 협상, 강압적 협상으로 일관된 형태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실제로 약육강식의 세계질서가 다시 도래한 게 아닌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에, 전쟁으로 치닫기 전에 세계경제 관계가 이끌어졌던 세계가 전쟁으로까지 이르렀던 과정을 극복한 인류의 역사의 과정을 제가 보기에는 다시 또 다른 패권적·강압적, 약육강식의 협상으로 전환하면서 과연 미국과 전 세계적인 경제의 공동 발전이 가능한 체제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시간이 평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자인데 뉴욕타임스에서도 ‘트럼프가 관세 인하 대가로 수급 행위, 글로벌 강탈 행위다. 돈 내면 관세를 인하하는 트럼프 무역협상은 동맹에 대한 강탈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관세협상 최저, 현재 영국이 최저 관세를 받은 것은 영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적자국이기 때문에 최저 협상국이었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사실은 대미무역 적자의 순으로 제가 보기에는 협상이 진행됐다고 봅니다.

PPT를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무역수지 및 관세율 발표 현황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무역수지가 많은 중국부터 한국까지 현재 한 아홉 나라 정도를 표기했는데 일본과 한국의 무역수지가 대략 680억, 660억으로 GDP 규모가 아니라 무역수지의 적자 규모로 관세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트럼프식 협상이었다.

그러니까 대만은 현재 우리보다 적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진행 중이고 최소 20% 이상이 될 예정이고 스위스도 의약품과 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40% 관세를 때리겠다고 한 거지요.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세가 우리보다 높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전 세계적인 대미 무역구조 속에서 나오는 관세협상의 추이와 흐름, 역관계에 관해서 대한민국이 협상을 15%와 3500억 불 투자, 그중에서 조선업에 대한 1500억 불에 대한 부분들을 쿼터를 정확히 주면서 협상했던 바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평균 이상으로 대한민국이 대미 협상을 잘 진행했다고 하는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이런 협상의 결과로 과연 미국의 경제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제조업이 부활되고 고용이 확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될지는 제가 보기에는 1년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전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을 때도 확 떨어졌어요. 한마디로 관세를 높이기 때문에, 미국의 월마트에서 파는 모든 제품이 중국과 동남아, 아시안국에서 수입이 되는데 그 수입의 관세를 15~30%를 높이면 물가가 올라가고 당연히 유효 수요가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결론은 고물가 속의 저성장,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미국 경제의 위기도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방향 자체가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철저하게 국익에 입각해서 대미 협상의 관세와 투자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가 느낀 대미 협상에서의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과 미국의 대처 방안에 대한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흑자국에 대해서는 흑자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1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가 흑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높은 관세를 두드려 가지고 줄이든지 관세를 낮추려면 미국에다가 너가 뭔가 투자를 하든지 물건을 구매하든지 이걸 하라는 게 미국 포지션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관세를 낮추면서 또 우리가 부담하는 투자나 구매 이런 부분을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이 순서대로 보면 EU의 6000억 불 투자, 일본의 5500억 불, 우리 3500억 불의 투자는 현재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나온 결과인데 이 시간, 그러니까 선후의 문제, 경중의 문제, 어느 시기에 시작해서 어느 시기에 종료한다 이게 디테일하게 나온 사항이 없어요. 포괄적인 협상이고, 일례로 조선업 분야의 1500억 불 투자도 조선소를 짓고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이전하고 그에 따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하게 해서 그에 따르는 대출, 보증, 투자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영진 위원 저는 그래서 충분하게 이 수치가 트럼프의 희망대로,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해석을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해석하면서 진행해 나갈 시간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게 아마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절차가 좀,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3500억 불이라는 게 4년 안에 될지 또는 오래 걸릴지는 프로세싱인데요, 일반적인 사업의 관리로 봤을 때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 경제적으로 보면 6000억, 5500억, 3500억 불을 같은 시기에 같은 나라에 같은 분야에 투자한다, 저는 비경제적인…… 경제 논리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고 그것이 실현되기 어려운 협상을 한 건데 그냥 존중해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50% 관세 그리고 자동차부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총리의 의견을 좀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FTA보다는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유동성이라든지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원을 최대화하고요. 그런데 그래서만 경쟁력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노출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야에 R&D를 같이 접목한다든지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초혁신경제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풀리(fully) 지원한다든지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지 인력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번 관세협상에서 다른 나라들은 대통령 또는 총리를 상대로 했다’. 그런데 한국은 제가 가서 했었습니다. 저는 굴욕적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당하게 할 말 다 했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무역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WTO 체제라든지 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FTA라든지 이게 우월했는데 지금 미국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 나라에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에 대해서는 흑자를 줄여라,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 관세를 낮추려면 미국에 투자해.

완전히 무역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달라진 무역 환경에 맞게 우리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전략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미국에 얼라이언스 하면서 한국이 미국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은 가져오고 또 한국의 장점이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미국한테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서 미국이 오케이, 이런 분야에 투자를 하자. 반도체에 투자하는데 3500억 불이 아니고 5000억 불을 투자한다 그러면 한국이 2000억 불 투자하고 다른 나라 할 때 누가 우위를 점하겠습니까? 누가 기술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 문제를 자꾸 소극적으로 보기보다는 진짜 적극적으로 달라진 무역 환경 속에서 한국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지 이것 부담이 많으니까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는 진짜 큰일이 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적극적으로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러면 저희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부총리께서 경쟁력도 키우고 고부가가치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당연한 말씀인데 아마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울분을 느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지금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에서도 다른 나라와, 기존의 경제질서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털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당장 만들어 주는 게 부총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기재부장관이자 경제부총

리로서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드린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설명도 그렇고 일본, EU하고 비슷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나쁘다(Not bad)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방위비 분담과 같은 안보 문제도 포함해서 합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일본에서 공개한 것만 알고 있고요,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를……

○권영세 위원 일본 측한테 이것을 문의도 안 했습니까?

우리가 합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일본 뒤에 합의하게 되면 그쪽에서 얘기를 못 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쪽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일본에서 구매를 해 주는 부분은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매를 하는지는……

○권영세 위원 지금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구매하냐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기 구매와 또 방위비 증액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안보 문제가 정리된 거냐 아니냐 이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 부분은 아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권영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위비 문제를 포함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디커플(decouple) 했다는 부분은 아까 진성준 위원하고 얘기하실 때 보니까 이것은 우리 측 아이디어였던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우리 측 아이디어라기보다는요 이게 지금 관세협상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다른 것까지 엮이다 보면 8월 1일이 지나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25%를 맞게 되면 경제가……

○권영세 위원 글썄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방위비 문제는 우리가 이쪽 관세 부분의 협상에서 양보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고 지금 또 별도로 그라운드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돼야 되겠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니, 안보실에서는 이쪽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보실에서 아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별개로 그쪽에서는 이것은 이미 끝났고 그쪽은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다르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 한미 FTA가 우리한테 유효하고 유리하다, 계속해서 존재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내야 되겠지만 미국은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안 내고 들어오는 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습니까? 일본은 미국하고 FTA가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관세협상에 의해서 이번에 정해진 것 빼고 미국 제품을 수입을 할 때 일본은 관세를 부과합니까? 어떻게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 대신에 일본은요, 지금 저희들은 관세가 없기 때문에 미국 갈 때 15% 하면 연……

○권영세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일본에서 미국 제품을 수입할 때 일본이 관세를 부과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일본은 지금 FTA가 아니니까 자기들 관세율이 있을 겁니다.

○권영세 위원 계속해서 부과하는데 우리는 관세를 내면서 미국 제품은 무관세로 들어온다 이거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자기가 관세를 맞지만 기존에 있는 관세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 대신 저희들은 나갈 때요, 우리는 관세가 0이니까 15% 되고 일본은 또 미국에서 그만큼 관세를 더 받기 때문에 5% 같으면 20%를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렇게 됐으면 우리도 자동차 같은 경우도 12.5%를 관철을 했어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관철하려고 제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제가 좀 역부족했었습니다.

○권영세 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쌀, 소고기 등 농축산품들에 대해서 방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밑에는 불포함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게 확정된 건 아니고 앞으로 미뤄졌다는 얘기지요, 그냥 전체적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번에 관세협상할 때 트럼프 대통령님과의 관세협상에서는 그게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있겠네요.

투자 규모가 우리가 3500억 불을 약속을 했는데 이게 GDP 대비로 보면 우리는 한 20%에 육박을 하고 일본은 14%, EU는 한 6~7% 정도입니다.

우리 지금 외환보유고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한 4000억 불 넘습니다.

○권영세 위원 4000억 불 정도 되지요. 우리가 에너지 수익까지 포함하면 거의 우리 총 외환보유고를 초과하는 그런 액수가 되는데, 3500억 불 투자와 관련해서 1500억 불은 소위 마스가, 조선 쪽이고 2000억 불은 금융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스가는 금융투자 방식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조선이나 한화조선이 미국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1500억 불 양에서 빼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것은 정부만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민간기업이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고 이것은 정부만이 하는 거다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권영세 위원 오케이.

또 트럼프가 SNS에 합의 직후 쓴 것에 보면 ‘그들의 투자 목적으로 추가로 거액을 투자키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3500억 불에 포함이 안 되는 거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기업들이 할 텐데 기업들하고는 합의가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직 안 됐습니다. 기업들이 아마 이번에 정상회담 가면서 기업들이……

○권영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업들하고 미국 정부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가 미국 기업에 약속을 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아직은 약속한 부분은 없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여기 트럼프 보면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으로 큰 액수를 투자하기로 합의에 동의했다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그것은 뭘 얘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삼성에서 반도체 투자 이런 부분을 아마 트럼프가 염두에 뒀을 것 같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동의했다라는 부분이 이 사람이 앞서 나간 거고 아직 확실하게 확정된 게 없다 이 말씀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번에 기업인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 기업에서 미국에 자기를 나름대로 투자하겠다는 게 아마……

○권영세 위원 그러면 아까 질문……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 임이자 예.

○권영세 위원 아까 질문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정부하고 미국하고 합의한 게 아니라 기업들하고 미국 정부하고 한 거라는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합의한 것은 아니고요, 미국에서 아마 투자하겠다고……

○권영세 위원 여기 어그리드(agreed)라고 썼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러니까 거액을 투자한다는 게 우리 기업들이 이번에 대기업 총수들께서 가서 투자한 부분입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주로 보증대출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돈 대는 건 누가 대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돈 낸다는, 한국이 보증 형태든 또는 투자 형태든 그 다음에……

○권영세 위원 보증은 누군가가 돈을 대는 데 대해서 보증하는 거니까 돈을 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럼요.

○권영세 위원 예를 들어서 미국 금융기관이 돈을 대고 우리가 보증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럼요. 3500억 불 범위 내에서는……

○권영세 위원 그러면 거기에 3500억 불도 포함이 된다 이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다 됐습니까?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권영세 위원 예, 나머지는 다음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오늘 오전 질의는……

○박대출 위원 이것 하고……

○김영진 위원 마무리하세요, 하기로 했으니까.

○위원장 임이자 박대출 위원님 꼭 하시겠습니까?

○박대출 위원 예.

○위원장 임이자 박대출 위원님 하십시오.

○박대출 위원 부총리님, 이번에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들이 많았던 그런 협상 충분히 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나 이런 것들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미국과의 관세협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가 최선을 했습니다만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대출 위원 실용외교의 승리다라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저는 승리라기보다는 여건 속에서는, 하여튼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여당 일각의 평가와 정부의 평가는 좀 다른 것 같네요.

오늘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계속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당연한 겁니다. 누가 가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잘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왜 그러냐? 이제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관세협상이 다 타결된 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 당국, 경제 당국의 사령탑으로서 각오를 다지고 인식을 달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식에서 대단히 국민들에게 안이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의 답변을 많이 하세요. 제가 몇 가지를 좀, 아까 말씀하시는 걸 몇 개 보니까……

한미 FTA가 살아 있다. 자동차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노조가 국익을 먼저 생각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보니까 인식이 그렇지 않더라. 이러한 안이한 인식에서 안이한 대처가 나올 것 같아서 대단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더 정교해져야 돼요, 경제 당국은. 미국과의 협상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정책을 풀어 나가는 데 대해서 장애물을 더 걷어 내고 촉매제는 계속 더 투입을 하면서 경제에 대한 정책을 펴야 되는데, 협상 타결의 의의라고 딱 적어 놔는데요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를 했대요. 이런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풀어 나갈 수 있는가 대단히 걱정되는 겁니다.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를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지금 이런 측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박대출 위원 아니요, 측면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협상 타결의 의의의 첫 줄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25%……

○박대출 위원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 압력 해소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게 안 됐더라면요, 25% 관세를 맞았기 때문에……

○박대출 위원 그것을 누가 몰라서 답변을 하냐고, 정교한 답변을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인식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니,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위원님.

○박대출 위원 불확실이 큰데 해소가 된 거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15%로 갔으니까 그래도 일부는 해소가 됐다고 저는 보여줍니다.

○박대출 위원 그러면 ‘일부’를 넣어야지요. 해소와 일부 해소가 같습니까?

제가 정교하라고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정교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비쳐지면 그에 대한 불신으로 만들어지는 그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을 제가 정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교하라고 하는 이유가 잘못하면 이런 게 다른 인식으로 호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말씀하실 때 솔직히 찌주머니는 숨기고 있으면서 구 부총리가 국회에 와서 그냥 대충 답변하고 그런 것이면 차라리 좋겠어요. 정부가 정말 지혜로운 타개책을 다 갖고 있고 그랬다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께서…… 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비교가 늘 일본이나 EU 이런 게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께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최근에 한일이 엇비슷하고 그로 인해서 또 최종 나타난 관세의 수치도 비슷하고 그러니 크게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덜 불리해지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그런 시각으로 계속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세요. 제가 정교해지고 솔직해지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요, 25년간 대미 무역흑자가 우리나라는 4370억 달러였습니다. 일본은 1조 7390억 달러예요. 최근 한 2~3년간의 그런 흑자 규모를 가지고 일본과 한국의 대미 흑자 규모에 대한 그런 이익 평가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감소될 이익, 일반적으로 손해가 되겠지요. 그런 데 대해서 보면 우리한테는 너무 가혹한 결과로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일본과 우리가 비슷하니까 지금 비슷하게 갔다 이렇게만 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에 비상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4500억 불 이렇게 적었는데요 에너지 1000억 불은 기존에도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대출 위원 그 부분의 액수에 대해서 지금 에너지 1000억 불이니 3500억 불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고 그 수치만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세요.

그에 대한 위험성을,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한일 관세합의가 말이지요, 지금 GDP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1.8조 달러고 일본이 4.02조 달러예요. GDP 대비 관세합의액으로 볼 때는 우리의 비중은 24.32%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13.66%입니다. 거의 절반 수준인데……

1분만 더 주시지요.

○위원장 임이자 예.

○박대출 위원 그리고 인구를 보세요.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5168만 명이고 일본은 1억 2310만 명입니다.

국민 1인당 관세합의 부담액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8707달러고 일본은 4468달러입니다. 국민 1인당 관세합의 부담액이 2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 국민보다 2배나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해지고 이에 대한 평가도 냉철하게 내리면서 국민들에게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같이 협력을 구하면서 풀어 나가야 될 문제다,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또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본은 5500억 불 비교해 놓으신 거는 그것은 진짜 그야말로 우리 2000억 불에 대응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1000억 불을 해 놓은 것은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는데—상당 부분을 해 주고 일부를 더 얹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단순 비교 대상으로 넣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500억 불 중에서 1500억 불은 우리가 조선 분야에 하는 걸로 커미트먼트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하고 얼라이언스 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일본처럼 5500억 불 전체를 통으로 내놓은 것하고는 또 다르다는 측면을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대출 위원 부분적인 제안, 부분적으로 참작하고 참조해야 될 수치지요. 근본적인 부담액이나 GDP 대비 관세합의액이나 관세합의 부담액에 대한 그 비중이 바뀌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수치만 좀 줄 뿐이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도 위원님, 효과도 나중에 보셔야지요, 효과도요.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효과도 우리가 더 가져오는 부분 아닙니까?

○박대출 위원 그 수치가 조금 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아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또 하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오해한다는 게 아니고요 1000억 불은, 우리가 에너지 구매하는 부분은 5500억 불하고 이렇게……

○박대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답변을 좀 더 정교하고 솔직하게 하라고 그랬지 않습

니까. 그 얘기가 지금, 그렇게 계산하면 틀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계산 중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은 참조를 좀 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취지를 이해한다고 말씀은 드렸고요.

○박대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이게 오답을 요구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호도할 수 있는 답변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제가 국민들을 호도하고 판단을 하려는 취지는 진짜……

○박대출 위원 1000억 불은 아니다라고 딱 지금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니, 그러니까 1000억 불은요……

○박대출 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참고할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참고할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다고 이게 순위가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가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출 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를 아직까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니요, 취지는 이해를 하고요.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오늘 오전 질의에서 실력, 실력, 실력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하시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갖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전에 통상 업무 관련돼 갖고 협의를 해 왔고, 협상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 갖고는 어떤 협의를 어떻게 해 왔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장관님께서 짧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협상에 임하시면서 마스가 1500억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 먼저 제의를 해서 여기서 어떤 협상을 하셨는지 그리고 2000억 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누가 먼저 제의를 했고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했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렀는지 국민들은 그게 굉장히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가지고 오후에 회의 시작할 때 주시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시자고 한다면 비공개로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최혜국으로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거기에 대해서 협의한 거나 합의문은 없지요?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합의문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 갖고 이런 부분이 나와서 어떻게 얘기됐는지 여기에 대한 경과보고에 대해서도 서류로 문서화해서 내 주시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미국의, 어떤 세계, 국제정세를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EU는 이미 아웃인 것이고요. EU는 아웃이고, 중국은 다운입니다, 다운. 그 속에서 러시아만 지금 업시켜서 가는 이 속에서 아까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FTA나 WTO나 이것 필요 없다는 거지요. 국제정세 속에서 파워가 최고라는 것 아닙니까, 파워. 파워 갖고 덤벼드는데 반도 국가인 우리나라가 어떤 힘이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얼라이언스를, 나는 오늘 여당 위원님들께서 피같은 얼라이언스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깜짝깜짝 놀라기는 합니다마는 부총리께서도 얼라이언스를 굉장히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바게닝 파워(bargaining power)를 어느 쪽에서 더 많이 쥐고 갈 것이냐 이게 협상을 잘하는 거고 이게 정말 실력인 겁니다.

그러면 8월 1일 날 우리가 정해져 있었다고 하지만 그때 아니면 우리는 25% 어차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냐라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실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라이언스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 갖고 좀 더 우리는 이것을 연기를 해 볼 수는 없었을까, 아니면 0 대 0으로 했으면 그건 최고의, 국민들이 전부 다 원, 최고라고 해 주지요. 그러나 3500억 불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5% 인상해서 15%이고 우리는 0에서 15% 갔으니 이게 과연 우리가 잘된 협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는 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서로 대화도 안 맞고, 그렇지요? 서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대화도 안 맞고.

그다음에 농축산 관련돼 가지고도 농민들이 계속 예의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슬쩍슬쩍 ‘아닙니다. 이것은 완화 단계로 가는 거지 이걸 결과적으로는 전혀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게 뚫리면 결과적으로는 수입 개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쌀하고 한우, 소고기 관련돼 가지고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과채류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했는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적시해서 오후 2시 20분에 우리 회의 시작할 때는 그 자료를 주시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는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 정해 가지고 오늘 그에 대해서 더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일영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어쨌든 미국 갔다 오시느라 애 많이 쓰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장관님, 이번 협상 결과 만족하십니까? 돌이켜 생각하니깐 좀 아쉬운 게 있나요? 어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또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일영 위원 좀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합의문이라는 게 없습니까? 양국 간의 중요한 협상이었는데 원래가 없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번에는 EU나……

○정일영 위원 다른 나라도 없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일본이나 저희나 똑같은……

○정일영 위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건 자기네 관세에 서명한 겁니까? 뉴스, 텔레비전 보면 막 서명을 크게 멋지게 하던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거는 나중에 자기들이 다른 쪽에 한 부분이고요.

○정일영 위원 다른 쪽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합의인데 합의문이 없으면 나중에 해석이 라든지 후속 조치가, 이게 또 서로 입장이 달라 가지고…… 저도 외국하고 여러 가지, 정부가 협상을 해 보면 MOU 체결 협상문 할 때 단어 그 워딩 하나 가지고도 밤새 싸울 때가 있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게 엄청난 영향을 주니까, 이게 좀 아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펀드 3500억 불도 미국은 자기들이 90% 수익 가져가는 걸로 얘기하고 우리는 90% 재투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가져오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좀 혼선이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재투자 90%라는 건 90%…… 미국 얘기하는 것처럼 이익을 우리가 가져온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좀 다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딱 일의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정일영 위원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요즘, 오전에도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인데요. 이게 사실은 법이 아니고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 157조에 대주주의 범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이게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춰진다고 그러니까 주식이 폭락했다 또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많은 비판적인 비난 뭐 이런 게, 정부는 가만히 있고 우리가 여당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당, 그것도 제 옆에 있는 우리 진성준 정책위의장님, 엄청나게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은 일리가 있다고,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과도하고 너무 심하고 막 그런 비난·비판이 폭주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정부에서 나서서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하고, 국민들한테 왜 정부가 그렇게 했는지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대통령실 가만히 계셨지요? 설명 한번 제대로 하셨어요, 왜 10억으로 낮춰야 되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이 세법 할 때 설명은 드렸습시다만……

○정일영 위원 장관님, 그때 그 설명 가지고는 안 되고.

아니, 10억으로 낮출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낮췄을 때 부작용으로 주식이 폭락, 주식시장이……

○위원장 임이자 정일영 위원님 잠깐만요.

부총리님.

○정일영 위원 이거 시간을 좀,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제 발언 시간인데 왜 또 갑자기 이러십니까?

○위원장 임이자 1분 더 드릴게요. 요청이 있어서, 마이크 좀……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앞쪽으로는 잘 안 들려요, 말씀하시는 게.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하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이크 좀 대고 답변하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정일영 위원님 1분 더 드릴게요.

○정일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아까 답변하실 때 한 주주가 5.79 종목 보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그게 모든 주식 보유자들의 평균입니까, 10억 이상 되는 분들만 뽑은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평균 5.79 정도를 보유하는……

○정일영 위원 그러면 10억 이상 되는 분들은 그보다 적을 가능성이 많네요, 보유 주식

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것 평균 개념이니까.

○정일영 위원 어쨌든 그런 자료를 한번 좀 주십시오, 정부의 입장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께 또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이 3500억 불 말씀인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1980~2024년까지 미국에 직접 투자한 액수보다 더 많은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3500억 불을 언제까지 몇 년 동안 투자한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정일영 위원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30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저희들도 국내에서의 경험으로 따지면 사업을 할 때는 부지를 정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또 터파기를 하고 건축을 하고 하는 이 규제가, 그 사이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정일영 위원 그런데 장관님, 이게 일종의 펀드 형식으로 되니까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이런 데서 대출 지급보증 뭐 이런 투자 프로젝트 보증 이런 게 다 붙어야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손실이 생기면 우리 공공기관들이 그만큼 손실을 떠안아야 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부가, 또 어차피 공공기관들은 정부가 뒤에서 출자를 해 준다는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일영 위원 그래서 결국 참 잘해야 돼요. 잘하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리고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한미정상회담이 8월 말경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협의 중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좀 걱정인데, ‘한국이 추가로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이 3500억 말고 추가로 또 투자한다는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걸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민간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방위비나 무기 구매 이런 건 아니고 민간 차원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삼성이 또 미국 텍사스에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니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대통령께서 가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면서 그런 것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큰 액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그리고 품목별 관세에서 아까 오전에 답변하셨는데 자동차가 좀 불리하게 됐어요. 그렇지요? 무관세에서 관세를 내니까, EU나 일본에 비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 잘 대처해서, 우리 자동차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잘 좀 지켜 주셔야 될 것 같고.

철강 50%는……

가만 있어, 1분이 여기서 플러스 되는 거지요, 여기에?

○위원장 임이자 아니요, 끝나고 1분 드립니다.

○정일영 위원 감사합니다.

철강은 50% 관세, 이게 결국 미국이 수입 금지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지요? 추가 협상이 그러면 계속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 부분은 제가 트럼프 대통령 타진해 봤는데 전 세계 동일하게 이거는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전 세계 동일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동일합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미국 철강회사들만 굉장히 덕을, 혜택을 보는 거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큰일 났네요.

그리고 알루미늄, 반도체, 구리 우리나라 신성장산업이고, 제 지역이 바이오 굉장히 큰 산업으로 일어나고 바이오 허브인데, 바이오 같은 경우도 협상이 끝난 거예요? 최혜국대 우라고만 돼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품목별 협상을 또 해야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게 미국에서 만약에 관세를 부과할 때는 한국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정일영 위원 해 주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그게 언제쯤이면 결정됩니까? 반도체도 지금 안 정해졌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중요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곧 정한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은 따로 우리랑 협상을 안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그것도 큰일이네. 그래도 좀 가셔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중요한 산업인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을, 최혜국대우를 받는 것은 협상을 했었습니다.

○정일영 위원 하여튼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국내 청년 일자리들을 너무 줄여 가지고 가뜩이나 우리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데 그런 것을, 부총리님께서 청년들 일자리 좀 잘 챙겨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그리고 알박기, 낙하산인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재부 내외, 제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부총리님께서 공공기관도 그렇고 기재부 내외에 알박기나 낙하산인사는 뿌리 뽑든지 하여튼 없어지도록 개혁을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알박기 뿌리 뽑는 것은 불법인데요.

○정일영 위원 아니, 합법적으로 해야지.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뭐 괴롭혀서, 그것도 괴롭힘인데……

○정일영 위원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지금 논의를 할까요?

○위원장 임이자 혼잣말이 너무 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어떻게 보면 이번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최악의 조건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정부 출범한 직후였고 협상 기간도 대단히 짧았고 더더욱이나 직전에 협상을 타결했던 일본과 유럽, 특히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일본이 버텼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실망스러운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에게서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런 조건에서도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했고 또 전략적 협상도 했고 그리고 디테일도 잘 챙겨서, 예를 들면 모자 같은 거 그다음에 패널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챙겨서 설득력 있는 협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세율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최악의 조건에서는 그런 대로 선방했고 또 특히 민감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타결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번 협상을 보면서, 관세협상 타결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다, 안도감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무역질서가 미국이라는 강대국 또 트럼프라는 폭주기관차 같은 지도자에 의해서 흔들려 버린 이런 상황이 매우 씁쓸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재편되는 이 질서에 우리가 잘 대응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긴장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짚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동차 상호관세는 행정명령이 8월 7일 날 되면 1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품목관세 10%가 지금 적용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행정명령이 언제 될지 지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상호관세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상호관세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15%.

○김태년 위원 품목관세 부분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품목관세 자동차는 15%로 아마 곧 될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거는 행정명령이 언제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8월 7일……

○김태년 위원 8월 7일 날은 상호관세 문제고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10% 그거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태년 위원 이거 해당이 돼서 25%를 물게 된다던데, 품목관세 10%에 대한 행정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지요. 8월 7일까지는 25%가 되는 거지요.

○김태년 위원 그러면 8월 7일 이후에는 15%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15%,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게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김태년 위원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해서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증설을 할 경우에 기계나 설비들 이런 게 많이 미국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결국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될 텐데, 이 투자 집행에 대한 설비 여기에 관세가 또 붙게 될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투자 방해 요인이 되잖아요, 우리로서는 부담이 되고. 이 점을 잘 설득하고 협상해서 최소한 투자 집행과 관련한 설비에는 무관세를 적용받는 협상을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미국하고 협의할 때는 추가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리고 3500억 불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미국은 ‘미국이 갖는다. 미국 정부가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재투자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이 이것을 어떻게 가져요? 미국 정부가 어떻게 가져요,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에도 관련 법들이 있을 텐데, 자본주의국가인데, 그래서 이거는 재투자……

그런데 부총리께서 아직 구체화된 건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셔서 오히려 그게 더 불확실성을 높이는 거 같아요. 어떻게 미국이 이것을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미국은 자꾸 그런 식으로 우기니까……

○김태년 위원 미국에도 관련 법들이 있을 텐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맞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다음에 구리, 철강, 알루미늄과 관련해서는 품목관세 50%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트럼프도 완강하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부담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맞습니다.

○김태년 위원 다른 나라도 똑같이 적용된다, 수출을 하는 국가끼리 경쟁은 똑같을지 모르나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하고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지금 철강이라든지 또 구리라든지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단계적인 자금 지원이라든지 또는 중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같이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특히 대기업들이 미국 중심의 생산을 확대하게 됐을 경우에 국내 제조업의 위축, 특히 대기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중소 부품사, 협력사 이런 데도 타격을 입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유통기업들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그다음에 지역산업 클러스터 보강 또 국내 제조기반 유지 그리고 산업공동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이게 철저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정부가 잘 세우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수립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투자하는 부분,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국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여서, 경쟁력을 높인 노하우가 한국으로 또 다시 들어오고 해서 또 한국의 경쟁력을 높여 주고 하는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1분 더 주십시오.

○김태년 위원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거꾸로 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유인 환경 이런 것들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맞습니다.

○김태년 위원 방금 제가 짚었던 것들 포함해서, 지금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검토를 하다가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는 안 들어왔는데, 용역을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전문가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것을 좀 신속하게 해서, 이런 제도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꾸 WTO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WTO 가입 안

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일본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중국도 최소한 국내생산 촉진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유의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WTO에 제소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자기들이 하고 있으니까, 유무형으로. 그래서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대책들 충실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토가 끝나는 즉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감사합니다.

○박홍근 위원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이재명 정부가 맞닥뜨린 첫 번째 가장 어려운 관문이었고 국민의 염원을 받아서 저는 그래도 잘 넘어섰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관세협상을 그래도 국제무대에서 대등한 통상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그래도 잡아 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바꿔 나갈 것을 떠나서 우선 당장, 통상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외교적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현재의,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실행 일정이나 사업 항목이 없이 발표가 되었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 정부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가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게 국익을 오히려 창출할 수 있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일본은 그런 식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나머지 한 2000억에 대해서는, 조선업처럼 강점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미국 측하고 협상을 할 때 제시를 해서 미국이 이 프로그램 좋다 그래서 조선업처럼 자기들이 하겠다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밑 작업은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우선 단기적으로 이번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에 대해서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그 효과에 대해서도 보다 정밀하게 분석을 해야 할 겁니다. 지금 각 경제 유관부처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우리 산업……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당연히, 이게 여러 가지 플러스마이너스가 다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분석 결과도 나와야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피해가 좀 더 있는 데에 대해서는 지원책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야 우리 기업들도 기를 펴고 국제무대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통상 관련해서 이번에도 정부 초기다 보니까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냐에 대한 우려도 한편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현재는 통상교섭본부가 있습니까마는 미국은 또 별도로 두고 있고 나라마다 약간 다르긴 합니까마는 통상교섭본부가 산업부의 직원들이 서로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평가도 한편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국가를 대표해서 통상의 창구 역할을 맡기 때문에 그 위상도 더 올려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제안도 있지요. 그래야 협상력도 생기고 대외신인도도 제고되는 것이라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마침 또 예산 차관도 계시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통상교섭본부가 지금 산업부랑 같이 세종에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데 주한 외국 대사관이라든가 또 외국 기업들은 주로 서울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임기근 예.

○박홍근 위원 그런 점에서 통상교섭본부의 서울사무소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교섭의 환경을 보다 우리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도 있고.

현재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누가 주재를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몇 번 하셨나요? 이제 장관들 구성돼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했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향후에…… 대외경제장관회의도 그동안은 사안 있을 때 하는 정도 이런 느낌이었던거데요. 이제는 통상의 문제가 국가의 아주 일상적 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확대하거나 아니면 운영을 내실 있게 할 것인지 이것도 좀 더 구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리고 이와 함께 당장…… 이번에 영국이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디지털 무역협정으로, 테크 딜(Tech Deal)로 전환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홍근 위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콘텐츠 플랫폼 기술력 이런 면에서는 경쟁력이 강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홍근 위원 그런 점에서 디지털 규범 또한 협상의 중심, 의제로 앞으로 당연히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의 강점인 만큼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국제규범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도하고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을 더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런 준비는 좀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개념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 그래서 이런 디지털 콘텐츠 또 소프트웨어에 우리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건 EU건 아세안이건 간에 통상협상에서 디지털 통상 선도국 이런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는 게 매우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는 강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고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대외경제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투자가 많은 곳으로 당연히 수출이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홍근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첨단기술 분야인 소부장에 대한 국내생산 특화 전략과 연계해야 향후에 이런 경제적,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좀 들고요.

그리고 하나 또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무역 질서가 이번에 미국으로 인해서 거의 깨진 것 아닙니까? 심각하게…… 사실은 우리가 자유무역 질서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후퇴한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홍근 위원 그래서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수출시장이나 수출품목 이런 것에 대한 다변화 전략도, 공급망 다변화 전략도 당연히 가져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중국 내수시장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수출 확대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존 FTA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중국과의 2차 FTA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중일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홍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특히 후속 대책·대응과 관련해서는 대응체계를, 저희들은 진짜 원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교섭본부, 외교부, 관련 부처 그다음에 산업부, 기재부 여기에 또 관련된 농림부, 공정위 해서 원팀으로 대응을 해서, 하여튼 가능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좀 선제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টে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자유무역 질서를 상당히 와해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질서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금 말씀한 디지털 규범 설정이라든지 AI 규범 설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공급망 측면이라도 해서, 하여튼 어쨌거나 글로벌 사우스뿐만이 아니고 EU하고 한다든지, 최대한 시장을 넓히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제가 요즘 생각해 봤을 때는 종전에는 제조 물건을 파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아예 그 나라에 가서 산업의 밸류체인을 잡는 것, 한국이 주도하는 것 이런 것도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한테 이게 굉장히 좋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요 한국이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는 제조를 하면서 생태계를 마련한 그게 있기 때문에 물건을, 자동차를 몇 대 파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자동차 생태계를 아예 한국이 주도적으로 건설해서 우리가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주면서 그 나라도 도움이 돼서 갈 수 있는, 산업 대전환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연구원 등 하여튼 전문가들하고 적극적인 방안도 마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국이 그런 발상의 전환을,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발상의 전환을 좀 했으면 어떨까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 예.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장관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통상협상하시느라, 관세협상하시느라 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협상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다른 현안 질의, 세제개편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외국납부세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7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도 우리 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국제관계에 따른 환경적 또 제도적 유인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담겨 있긴 한데 그동안 사실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께서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불가피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우리 산업이 해외로 급속히 빠져나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도적 방안을 국회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 동의가 되고요. 몇 가지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콘셉트가 최대주주에게 세금을 깎아 줘서 그들이 배당을 늘리게 한다는 것인데요.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주주는 세율이 지금, 그러니까 14%와 같으므로 세제 효

과는 없습니다. 다만 배당이 늘어나고 또 그로 인해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들도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배당소득세를 깎아 주면 최대주주가 배당을 늘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습니다.

최대주주가 배당을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주 근본적인 요인인데 바로 소유지배구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우리나라 올해 기준으로 약 92개, 기업집단 3300여 개의 기업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사실상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입니다.

(임이자 위원장, 정태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들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지분은 3.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부지분율은 6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총수 일가가 손에 쥔 지분은 3.5%인데 실제 영향력은 60%를 행사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소유·지배의 괴리입니다.

순환출자 그리고 지주회사의 낮은 자회사 출자비율 등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되는 낙후된 기업지배구조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고 배당하지 않는 주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에 쥔 지분이 3.5%밖에 안 되는데 실제 영향력은 60%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부분만 배당하기보다는 일감몰아주기, 중복·쪼개기 상장 등의 방식으로 총수 일가가 더 많은 기업의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해 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ESG기준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소유·지배의 괴리도가 30%를 넘는 기업의 배당성향은 22.1%에 불과한데 소유·지배의 그 괴리가 10% 미만인 기업집단의 배당성향은 55.9%에 달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유·지배의 괴리를 해소하지 않은 채로 세금만 깎아 준다고 배당할 거냐, 본 위원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소유·지배의 그 괴리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묘안이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은 자금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회를 강화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서 최대주주를 견제하도록 상법을 개정했던 것인데 장관님도 이 부분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최근에 상법 개정된 부분……

○차규근 위원 그렇지요, 그런 취지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이 상법 개정안, 그런데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 와중에 세금 깎아서 배당 늘리겠다고 하는 정책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세제개편 효과는 소득 최상위층에 집중됩니다. 경제효과는 불투명한데 소득불평등은 심화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도입하면 세수가 줄어드는 것 외에 장기적으로 주가 부양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지배구조를 이렇게 개선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단기적으로 어쨌거나 다수의 주주들이 소액주주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배당을 좀 많이 받아서 그

분들의 소득이 증가되는 그리고 주식시장도 활성화되는 이런 효과도 저희들로서는 추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규근 위원 소유·지배의 과리 해소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다음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째 같은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대주주가 보유 물량을 내놓더라도 기관등이 사들여서 주가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요? 정부는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규근 위원 사실 대주주 양도세, 김대중 정부 당시에 삼성 이재용 회장의 변칙 상속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도입이 된 건데요.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제도 도입 당시 목적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그 기준을 주식 보유량 또는 지분 총량으로 하는 것은 영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매년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자고 물량을 내놓고 주가가 폭락한다는 비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이 있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따라서 사실 과세의 기준을 주식 보유 금액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양도차익 5억 원 또는 10억 원 이런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세의 대상은 줄어들겠지만 과세의 기준 자체가 바뀌어서 특정 기간에 물량이 나온다는가 하는 비판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양도차익에 과세한다는 제도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주신 것처럼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그런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규근 위원 오늘 자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 관련되는 세제가 누더기가 되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일반적인 제도가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 향후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또 일견에서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금융투자소득세하고 관련되는 이슈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세법 개정하는 것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누더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과세의 기반을 좀 넓히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밸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이따가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대리 정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장관님, 관세에 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오전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건데 일단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큰 그림에서는 이해할 만한 결과다 이렇게 일단 봅니다. 이것을 너무 자화자찬할 거라기보다는 여전히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평가하거나 이야기할 것이라기보다는 국민들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름 협상의 과정 속에서 한 걸음 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지금 아직 합의문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후의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느냐에 대해서 이후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또 정리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이 합의문에 관해서는 EU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같은, 아마 그런 선상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정상회담 관해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로서는 의제를 합의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직접 연관시키는 건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면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이야기해 온 것들 중에서 미국에서 관세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무역흑자가 많다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계산식을 쭉 보고 최근에 일본이나 한국의 무역흑자액을 쭉 비교를 해 보니까 최근 24년도의 수치를 갖고 한 건 맞는데 그 전에 보니까 좀 더 적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적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래서 일본은 약간의, 수년 동안의 일정한 흐름 속에서 그 수치가 나온 것이라 좀 다르다. 최근 24년 그 한 해 것만 갖고 하는 건 좀 과하니까 이 점에 대한 어필은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했습니다.

○오기형 위원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러트닉 상무장관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우리 GDP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게 일본하고는 훨씬 작다는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여튼 흑자가 많이 나니까 그 흑자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였었습니다.

○오기형 위원 하여간에 지금 현재 논쟁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상에 필요한 다양한 카드들을 계속 서로 공개적으로 제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맞습니다.

○오기형 위원 다음으로는 2.5%, 자동차와 관해서 EU와 일본에 대비해서 2.5%의 관세 우위가 있었는데 한미 FTA 효과인 거지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고, 저는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입장에서,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어떻게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아마 일본하고 비교해서 일본은 2.5% 하고 우리는 0%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자동차업계나 또 부품업체들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정부가 뭔가 하여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R&D 라든지 이런 쪽에 협력을 해서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지금 이 FTA·WTO 체제 그 자체가 복원되도록 할 것이냐, 그게 할 수 있는 카드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런데 아무튼 FTA의 우월한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토론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그와 별개로 WTO 체제 자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보조금에 대한 논쟁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각국이 알아서 산업 전략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또 함께 풀어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이 2개가 선택을 일정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 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 뭔가의 구체적인 조치를 해서 기업들과 같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 자체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한미 FTA로 우리가 누리는 이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상호관세에 있어서는 있고요 품목별 관세에서는 그 부분이 소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익을 취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변화를 하고 또 기존의 WTO라든지 저희들이 FTA 효과를 누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을 지키면서 그래서 국익 관점에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미국에서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하고 있는 것 아실 텐데 관세에 대한 권한은 미 의회의 권한이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문제가 돼서 지난 5월 달에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건 무효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부터 항소심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이 추이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한 추이가 변화될 수도 있는 변수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막 무력화시키는 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인들도 아마 동의 안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좋은 방향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하는 그런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지금 이 법적인 분쟁, 이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가 무효다라고 하는 판단이 1심에서 있었고 2심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을 텐데 쉽게 바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전제로 한다면 WTO 체제나 또는 FTA 체제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오히려 그에 기초한, 이후에 우리가 서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서로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미 의회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외교

적인 방법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또 미국에 건전한 생각을 가진 분들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무차별한 관세 행위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바람직한 생각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FTA를 유지하는 게 또 당장 우리한테는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익 관점에서 두 트랙을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간사, 임이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기형 위원 지금 미국 경제가 고율 관세를 하면서 역으로 내상을 입고 있는 것 아니나라는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경제 스스로가? 미국에서 오히려 물가가 영향을 받고 고용지표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서 그걸 정부가 함부로 말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이렇게 보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정부로서는 진행될 상황에 대한 다양한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예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지금 미국 금리가 약간 멈췄지 않습니까, 인하를 하려는 흐름이었다가? 여러 가지의 통상 이슈든 국내 정치적 이슈든 이렇게 충격이 오니까 금리인하도 멈추고 미국 사회도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금리인하가 조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지켜보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 임이자 1분 더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금리 당국에서 이 상황을 잘 보고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기형 위원 이따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이신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부산 남구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이번 협상에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빨리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건 너무 많고 확인할 게 많으니까 빨리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FTA가 뭐의 약자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Free Trade Agreement)입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지요. 그 프리는 무슨 뜻입니까? 프리는 무슨 뜻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프리라는 게 지금 관세 프리……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관세 프리, 관세 제로 퍼센트, 즉 FTA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관세 0%를 가지고 무역하겠다는 것이고 그걸로 미국이나 우리나라 전부 커다란 이익을 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FTA는 깨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기본관세에 우리가 지금 상호관세가 15%가 되는데 어떻게 FTA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15% 내고 가야 되고 미국은 0% 이건 맞습니까? 그래서 미국 쪽 측면에서 봐서는 FTA가 살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FTA를 깨졌다고 하는 순간에 또 다른……

○박수영 위원 실제로 깨졌지 않습니까, 0%가 아닌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렇지만 또 FTA가 없는 국가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건 다 깨지기 전의 얘기고요.

또 여쭙볼 것 있습니다. 3500억 불 우리가 대미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그건, 우리는 원래 얼마 제시했는데 3500억 불이라는 돈은 누가 제시한 겁니까? 미국입니까, 우리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박수영 위원 우리는 얼마 제시했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제시한 것은 1500억 불 제시했고요.

○박수영 위원 그러면 트럼프가 3500억 불 제시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니, 미국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0억 불 정도를 이렇게 제시를 한 거지요.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 3500억 불이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금액이냐?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 우리가 3500억 불만 봐도 GDP의 24%, 일본은 13%밖에 안 되고 EU는 7%밖에 안 되지요. 외환보유고가 우리가 4100억 불이니까 외환보유고의 110%가 되고 일본은 42%밖에 안 되고요. 연 예산 대비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정도의 큰 금액을 쉽게 합의해 주고 온다,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다음에 3500억 불로 끝나면 다행인데 미국산 LNG와 석유를 구입해 오는 데 1000억을 더 쓴다고 그랬고 정상회담 때 트럼프 표현이나 러트닉 표현에 의하면 이노머스 어마운트 인베스트먼트(enormous amount investment) 이렇게 했어요, 엄청난 돈을 가져올 거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1000억 달러가 될 거다, 더 될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만약 그걸 1000억 달러로 보면 LNG 구매에 1000억, 대미 투자펀드에 3500억 그다음에 한미정상회담 또 1000억 하면 일본하고 똑같은 수준의 5500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이 되는데 3500억 달러 덜컥 합의해 주고 숨어 있는 것 1000억, 1000억 해서 5500억 달러가 되는 이런 협상을 지금 잘됐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상을 잘했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불이지만 방산, 에너지 구매 이게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 그다음에 항공기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물어볼게요. 일본은 방산 포함이라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우리는 지금 통상으로 왼쪽 뺄을 맞고 방산으로 오른쪽 뺄 또 맞을 수 있는 겁니다, 패키지를 덜 못 했기 때문에. 방산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얻어맞을지 모르는 상황이 돼 버린 거지요. 이거 통상과 방산을 묶어서 패키지를 덜로 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걸 끊어서 가게 되니 양쪽으로 다 얻어맞아서 최대한의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볼게요.

축산물, 농축산물 개방, 대통령실이나 부총리님 아까 답변은 쌀과 쇠고기 시장은 절대로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미국 측에서는 계속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트럼프도 트루스 소셜에 쓴 건 자동차, 트럭, 농업 모두 다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꼭 찍어서 오토스 앤드 라이스(autos and rice), 쌀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했던 말이에요.

도대체 어느 게 맞습니까? 미국이 잘못 말한 것 같으면 항의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미국이 그렇게 한 취지를 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쌀하고 소고기는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면 외교 당국을 통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항의하거나 정정해 달라고 요청은 했습니까? 잘못됐다면서요? 잘못됐는데 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렇게 하는 경우 오히려 이게 또 돌출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아니, 합의가 다 된 건데 또다시 돌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다음에 3500억 불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실은 우리가 돈을 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재투자 개념이다 그랬고 러트닉은 X에 올린 글을 보면 ‘미국에 투자할 3500억 달러는 트럼프 지시에 의해서 하고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것 도대체 3500억 불을 우리가 쓰는 거냐, 트럼프가 마음대로 지시하는 거냐, 그다음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거냐, 투자한 우리가 가져가는 거냐? 우리가 돈을 투자했는데 수익은 미국이 90% 가져간다? 어떻게 이런 협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느 게 정답입니까, 이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다만 3500억 불에 대해서 미국은 경제안보 분야라고 해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이런 식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 분야라면 저희들은……

○**박수영 위원** 짧게 짧게 답해 주시고요.

그다음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또 있어요. 상호관세가 15% 낮아지고 자동차 관세

도 15% 낮아졌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데 미국은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제로다, 즉 FTA가 유지되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게 정답이지요? 이게 그대로인가요? 사실입니까, 이것? 우리는 관세를 15% 내야 되고 미국 물건은 0%로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은 그런 식……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불공정한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다음 4번 한번 볼까요?

반도체·의약품 관세는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MFN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혜국대우를 해 주겠다는 건데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결과는 최혜국대우라고 하지만 우리는 FTA 국가란 말이에요. 0% 내던 게 다른 나라하고 똑같은 최혜국대우 된 게 잘된 협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0%였잖아요. FTA였잖아요. 전제로 얘기하신 FTA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게 저는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최혜국대우가 되는 건 몇몇 품목입니다. FTA는 전체적으로는, 물론 15%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 이게 합의가 안 되면 25%를, 또는 그 이상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의를 했지만 FTA라는 근거하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품목은 여기서 15% 올라가더라도 한국은 0에서 15% 올라가고요 일본이나 이런 데는 만약에 관세가 있으면 그 관세를 기준으로 15% 올라갔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농산물 그다음에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저희들의 협상에서는 전연 얘기가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00억 불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이 분명하게 밝힌 것은 한국이 강점이 있는 조선, 반도체, 에너지, 이차전지, 바이오 이런 분야를 딱 짚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저희들은 오히려 한국이, 그런 분야에 투자하면 한국이 일본이나 다른 EU보다는 훨씬 강점이 있겠다 이래서 내심으로는 또 저희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90%에 대해서는 일본이 90%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를 한 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혜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이런 부분인데요. 바이오 이런 부분이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해 봤자 몇 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외무역진흥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몇 개 하기 때문에 상호관세 품목으로 하는, 상호관세가 아니고 품목관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25%를 15%로 낮추기 위해서는 저희들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이신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이 한미 통상협상의 전략으로 트럼프가 직접 표현했던 용어가 있었어요. ‘동맹국

우선 협상' 그리고 '원스톱 쇼핑', 이 두 가지 용어를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보면 한국은 미국의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만들겠다 그런 의도였던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협상의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기준이 돼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평가받을 것이라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협상의 시점 그다음에 그 결과로 봤을 때 대단한 선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다른 나라의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았고 다른 나라가 먼저, 뭐 일본이나 이쪽이 먼저 다 협상을 끝내고 우리는 그 기준에서 우리가 전략을 다시 짤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던 거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부가 그런 협상 시점과 전략을 펼치는 데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선방했다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국민들도 그렇게 평가를 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약 65% 국민들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고 계시고 그러나 또 많은 우려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듯이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관세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품목별로 보면 대단히 걱정스러운 지점들이 많이 생겼지요. 그 점에서 정부가 아주 구체적인 대책들을 좀 세워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미 투자액 3500억 불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또 어디다, 아까 투자하는 것은 첨단전략산업 이런 쪽에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체계 이런 것들이 전혀 협상이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이것은 이제 앞으로 더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런 첨단산업 또는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투자가 자칫 국내 투자의 위축을 가져오고 그것이 국내 일자리 문제까지 연결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 촉진세 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까 김태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문가들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끝나고 또 이 관세협상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래서 미국 투자 부분에 대해서 국내 공동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의 이익률이 보통 7~8% 정도 된다고 그 래요. 그런데 중소기업의, 특히 부품회사 같은 경우는 이익률이 한 2~3%밖에 안 된다라

는 거지요.

그런데 대기업은 지금의 관세율 15%가 적용되더라도 기술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서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엄청 불리해진다는 거지요, 수익률이 2~3%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관세로 다 가 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중소 부품업체에 대한 대책은 특별하게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손해 본다는 거예요. 수출은 되더라도 손해 보는 장사가 될 수가 있거든.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태호 위원 그다음에 이제 철강 부분인데 이 철강은 지금 50% 적용인데 이 철강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 전략산업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지방경제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태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태안 쪽하고 포항하고 그다음에 또 광양 이쪽에, 전국적으로도 지방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관세가 50%가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덤핑 뭐 이런 것들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지점도 특별하게 장관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또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것은 미란 보고서에 의하면 이 관세협상이 끝나고 나면 환율 협상을 한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마라라고(Mar-a-Lago) 협정을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이 또 나와요, 미란 보고서에. 그것에 대한 지금 미국의 흐름은 어떤지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어떤지 여쭙보고 싶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이 환율에 대해서는 또 미국 재무 당국하고 저희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지난번 관세협상 과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은 없었던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떼어서 지금 재무 당국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태호 위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태호 위원 우리는 원래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오히려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잖아요, 지난번 우리가 1450원대 막 하고 그럴 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환율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태호 위원 그러나 여하튼 간에 미국이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이상으로 마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잠깐 부총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최지영 차관보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최지영 차관보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받았습니다. 답변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한미 관세협상을 함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관심사가 있고 특히 국회의원들께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기도 했고 또 도움도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는 전혀 보고 한마디 안 해 주시고 나중에 언론을 통해 갖고 국회의원들이 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너무 깜깜이 협상이고 또 협상한 결과물인 어떤 협약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오해가 오해를 부르고……

아까 여당 정일영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점심시간 때 그 차관보께서 저한테 답변서 갖고 온 부분을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물론 두 장짜리예요. 두 장짜리인데,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와서 설명하시는 부분들을 들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긍 가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아, 부총리께서 굉장히 힘들게 협상도 하셨구나 이런 부분도 또 인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회와의 소통을 늘 하셔야지……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부분, 한미정상회담도 이제 곧 열릴 테고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또 더 많은 플러스알파 대미 투자가 있을 것이라든가 데 대해서 지금 장관께서는 답변이 아, 그것은 민간기업들 투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라고 본다고, 그것도 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협약서 한 장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로 설왕설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국회하고 꼭 많은 소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세금 인상 부분도 그렇습니다. 세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께, 특히 아무리 지금 여당의 숫자가 많고 여당의 힘으로 못 할 게 없다 하더라도 야당 위원님들에게도 양해 구할 건 구하고 야당 위원님들과 소통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잘 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한덕수 총리가 대행으로 계실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그 때부터 우리 조선이라든가 LNG 또 무역균형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교환을 쪽 해 오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다가 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것 하지 말라라고 해 갖고 중

단했다가 다시 또 부총리께서 가서 협상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3500억 불 대미 투자 중에서 1500억 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원이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원이고, 다만 우리가 미국에다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우리의 고급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그로 인해서 기술이 유출되고 이랬을 경우에 우리는 껌데기만 남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어떤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현지에서 투자를 하게 되고 현지에서 우리가 많이 활약을 함으로 인해서 국익으로 갖고 오는 것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또 있기는 있어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고급 인력이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또 기술이 유출됐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껌데기만 남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그리고 2000억 불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 보니까 부총리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처음부터 3500억 불 했겠습니까. 그나마 1500억 불 같은 경우에는 마스가는 잘했다고 봐요, 저는. 마스가는 잘했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 2000억 불을 어떻게, 어느 시기에, 무슨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껌껌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와 국회의원님들 서로 간에 얘기하는 부분들이 공중에 뽕뽕 떠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또 부총리께서 지금 뭐 뽕뽕하게 무슨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철강·알루미늄 50% 관세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그다음에 자동차 15% 이것도 이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도 다 짐작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또 대응 대책도 마련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제가 우선 정태호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지금 철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흔들림으로 인해 갖고 지역경제 자체가 흔들려요.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저께 실사했나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정받는 것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철강산업……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누가, 차관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포항시에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경북에서 요청했습니다. 맞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마 먼저 산업부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아니, 기재부도 갔어요. 기재부도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관계 부처가 산업부·기재부·행안부·고용부·국토부 다잖아요. 그러면 기재부가 경제 컨트롤

타워인데 이걸 지금 산업부로 핑퐁 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니요, 거기서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같이 부처 간에 협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지금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그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북과 포항시에서 얘기해 왔던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답변을 하시면 너무 무책임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법상으로 지정권자가 산업부장관이라서 그렇습니다.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어쨌든 경제 컨트롤타워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의 생각을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실사 결과에 따라 저희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답답합니다.

차관님, 부총리께서는 관세협상하느라고 지금 바쁘셔서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차관님은 이 산업 분야, 지금 자동차 부품회사들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사하는 결과를 보고 뭐……

그러면 만약에 실사가 좀 못 미쳐서 나오면 안 해 줄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산업부장관하고 해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어쨌든 지금 철강 한 품목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역경제가. 오죽하면 포항시와 경상북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챙겨 보셨어야지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려면.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국회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요.

추후에, 제가 봤을 때는 실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했을 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도 새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오기형 위원 예? 바로 그냥 혹 들어오셔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지금 기재부에서 제 질의에 대해 답변이 준비 안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상황 파악 좀 하시라고, 나중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순서상 이인선 위원님인데요?

○위원장 임이자 이인선 위원님?

○이인선 위원 오기형 위원님은 맨 마지막에 했으니까 맨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것…… 그래서 혹 들어왔다고……

○정태호 위원 처음부터 하려면 이인선 위원님부터인데, 새로 준 거랑 다른데? 이게 여러 장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임이자 순서를 바꿨습니다.

○오기형 위원 예,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한번……

○위원장 임이자 예,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대출 위원 질의 순서를 보면 우리가 너무 무질서하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원칙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의 순서를 바꿀 때는 당 위원님들끼리 서로, 같은 당 위원님끼리 서로 협의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이게 앉아 있다 보면 순서가 어디 오는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무질서하게 해요. 그래서 행정실에서 원칙대로 좀 해 주세요. 기준에 해 온 관행이 있고 원칙이 있어요. 그대로 하세요. 제가 여러 번 지적하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위원장 임이자 행정실장님,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데?

○박대출 위원 위원장님한테 새로 어떤 기준으로 한다는 걸 딱 제시받아 가지고 그대로 하세요, 앞으로는.

○위원장 임이자 주질의 때 위원님들끼리 너무 많이 바꾸셔 가지고 이 부분이 좀 혼선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이 맞다고 하니까……

일단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예,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금리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그 이야기 하고 또 여전히 관세 이야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가 한 2%p 정도 되는데 미국에서의 금리인하가 우리 금리인하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한국은행에서도 되게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으니까, 또 이게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문제로 후속 협상 관련 쟁점 중에서 방위비 이야기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팩트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주한미군 규모는 4만 5000명이다, 한국은 1년에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된다 이랬는데 실제 저희가 알기로는 주한미군 규모가 지금 현재 2만 8000명 정도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맞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 팩트가 다르다 이런 거고.

갑자기 뜬금없이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미 한국이 지불하고 있는 금액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어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10억 불이 훨씬 넘습니다.

○오기형 위원 10억 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오기형 위원 한화로 계산해 보니까 올해 1조 4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1조 5000억 정도, 1조 5192억 이렇게 부담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일정 수준의 상승률로 하면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 지점을 트럼프 행정부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거나 정보가 좀 이상하게 바이어스된 정보가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있어서요. 소통은 좀 되고 있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아마 안보라인에서 소통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그때도 100억 불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 팩트 자체를, 좀 다른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그때그때 서로 함께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 협상 하기 전에도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 평택 미군기지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서 약 12조 원 정도가 소요됐었는데 대한민국이 그중 한 90% 이상을 부담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걸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기형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저희가 알기로는 90% 이상을 대한민국이 부담해서 기지를 만들었고 이 기지 자체가 단순히 한반도에서만 역할을 할 것인가, 어디에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그런 기지고 동북아에서 제일 큰 기지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오기형 위원 그런데 그 기지를 유지하고 건설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컸는데 이걸 미국에 있는 대통령실이나 의회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또 22년 기준 자료인데 이 기준에 의하면 아까 그 방위비분담금은 1조 4000억인데 실제 22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전체 비용,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체는 직간접 비용을 포함하니까 약 3.4조 정도 돼요. 맞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아마 직간접 비용까지 합치면 상당 부분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을 나중에 안보실이나 이런 데서 같이 공유도 하고 대응을 마련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국민들에게도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미국의 대통령실이나 또는 미국의 의회에도 적극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레스, 소통을 통해서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오기형 위원 지금 직접 비용 부담하는 것도, 22년 기준이니까요, 이때는 약 1조 2000억 정도 직접 방위비분담금이 있고 그 외에 국방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 다 합쳐서 직접 지원이 약 2.1조 그리고 전체로 하면 한 3.4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22년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21년도 거네요.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결코 한미동맹에 있어서의 군사적인 동맹과 관련해서 그 부담이 적지가 않다. 그런데 계속 오해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오해된 이야기에 기초한 협상은 적절하지가 않고 불공평하다, 그 얘기를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오기형 위원 다음으로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 대한 투자국, 23년 기준으로 보니까 대한민국이 215억 달러를 투자한 걸로 기록을 했어요. 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오기형 위원 그 당시에 비교해 보면 대만보다도 대한민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투자 더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계산을, 지금까지 과거에 투자했던 것도 계산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저는 지금 방위비 협상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요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대한민국이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협력이나 또는 군사적인 협력에 있어서 막중한 부담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어필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또는 그 인식이 왜곡되면서 왜곡된 메시지가 백악관에서 나온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 제기를 정부가堂堂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공감합니다.

○오기형 위원 국민들에게도 그런 내용을 계속 홍보하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부총리님, 하여튼 이번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비행기를 타려고 하다가 또 못 가고 결국은 직접 가서 소신 있게 협상을 하신 건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궁금한 게 많고 이쪽의 협상단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오전 질문에 이어서 대통령실에서는 ‘쌀·육류 개방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진위를 따지는 게 국익에 손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실은 보면 트럼프 정부는 트럼프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협상의 달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협상 스킬인지는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계속 농축산물 개방을 자꾸 호언장담하고 있고 우리는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트럼프는 ‘자동차·트럭·농산물을 받아들이고 합의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쌀 등 미국산 상품의 역사적인 시장 접근성을 제공한다고 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비관세장벽 상당 부분 철폐한다. 그래서 미국 농민이 유리한 환경이 될 거다’ 이렇게 협상 스킬로 자꾸 간보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다고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절대로 진위를 따지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농민들, 축산민들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걸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협상단에 가서 놓으니깐 이런 것들을 수면 아래에 내리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어쨌든 지금 저쪽에서는 협상 스킬로 우리 쪽을 자꾸 간을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실게임에 자꾸 들어가게 되는데 어물쩡하다 보면, 잘못하면 청구서가 날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가 동식물 위생·검역(SPS)를 여덟 단계로 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고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인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결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을 막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검역 조치를 당연히 8단계로 하면서 수입위험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단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과학적으로 해서 빨리하겠단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걸 비관세장벽으로 오해를 하고 간소화나 생략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정부로서는 간소화나 생략 그건 생각이 없고요.

○이인선 위원 절대 있을 수가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인선 위원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안 받아들이기 위한 작전으로, 연장작전 여덟 단계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 보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전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간소화나 생략이 잘못되면…… 굉장히 농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또 GMO 같은 것도, GMO 감자가 들어오면 강원도 감자 농가에서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협상단이 비관세장벽 허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한 바가 없는데 단 검역 시간을 줄이는 건 AI를 동원하고 빠르게 하겠지만, 어쨌든 방금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간소화를 하든지 생략하든지……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자동차 제로 하면서 오픈해 놓은 건 사실입니다만 단지 우리가 국민 건강·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이분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보면 두렵기 때문에 자꾸 감추는 것처럼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이인선 위원 어쨌든 한미 FTA도 잃어버리고 대미 투자로 호구 잡혔는데 그러면 농업은 꼭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이인선 위원 농업은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대통령 간에 그런 협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지만 절대로 이 부분은, 농민들 반란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걸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은 제가 보니까 결기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농심에 대못을 박는 이런 정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의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제가 요새 3500억 불 투자 이걸 포함한 관세협상이나,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란봉투법 또 법인세율도 1%입니다마는 다시 또 올린다 그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세제들, 대주주 요건 환원 이런 것들을 쪽 보면 대한민국 기업들한테 한국을 떠나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 아닌가, 점점 더 기업들이 한국에 있을 요인을 줄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3500억 달러 투자 이런 것도 오히려 기업들이 한국의 사업을 축소하고 시장도 훨씬 더 크고 자본시장도 훨씬 발달해 있는 미국에 가고 싶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걸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요즘은 들 정도입니다.

국내 투자가 위축되면 긴말 필요 없지만 대한민국의, 특히 대기업들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들이 결국 없어지고 우리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오전 질의에서 3500억 달러 이걸 정부가 다 하는 거다, 이게 투자, 대출, 보증 등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일단 이건 정부가 약속한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이 매칭을 하든 어쨌든 주투자는 일단은 민간기업들이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 물론 어느 정도 보증이나 대출이 좀 중복되겠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의 민간투자가 결국은 미국에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어차피 그 한도는 3500억 불이고요. 나중에 구성을 봐야 되겠지만 그중에서 출자라든지 대출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 구성에 따라서 공공 부문 내부에서 협업을 하고 역할 분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천하람 위원 사실 그게 국내에 투자되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돈인데 다 지금 미국으로 가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산업부장관은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측에서 보면 ‘펀드 수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미가 좀 불명확해요. 이게 90%의 수익을 배당으로 가져간다는 건지, 아니면 90%의 수익을 미국 내에서 재투자를 하겠다는 건지……

부총리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저도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요, 지금 일률적으로는 저희들한테 설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 할 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대출을 하든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가져오는 부분을 빼고 초과이익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도 했다가 또 다른 얘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천하람 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지금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하고 좀 더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일본하고 하면서 일본이 90%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얘기만 듣고 한국한테도 90%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하람 위원 그래서 그냥 그게 기준점이 돼서 90%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라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케이는 한 겁니까, 90%라는 것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저희들은 협의를 하자, 저희도……

○천하람 위원 협의를 하자는 정도의 단계라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천하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쌀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협상하시는 것 보면서 30개월 초과하는 소고기 있잖아요. 이걸 처음부터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절대 수입 개방 못 한다라고 우리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협상에 들어가셨던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쌀하고 소고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레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천하람 위원 설정을 했던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천하람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물론 예전 광우병 파동의 그 기억이 있어서 그렇지만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러시아하고 벨라루스하고 우리나라, 3개 나라로……

○천하람 위원 그렇지요. 일본, 중국, 대만, EU 다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30개월 초과하는 소고기를 절대 수입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도 국민적인 어떤 그런, 국민들하고 공감대를 이루고 가야 되는데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도 이루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좀 이렇게……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천하람 위원 부총리님, 제가 간단하게 짧게 여쭙볼게요.

광우병 위험이 실존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광우병 위험이 실존하기보다는 국민들의 감정을 조금 더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광우병에 걸리면…… 또 실존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다른 나라들은 팬썬인데 한국은 해야 된다는 주장도 양쪽으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저희들이 이걸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국민들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부가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요, 지금 전 세계 중에 특히 러시아·벨라루스는 사실은 미국과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중에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천하람 위원 그런데 지금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쩌면 민주당 정부가 과거에 광우병 부담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30개월 이상 소고기에 대해서 레드라인으로 설정하면 그만큼 우리 협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관세도 아까 얘기했는데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일정 부분 내주더라도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깎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이걸 그냥 국민들의 정서, 과학적이지도 않은 정서만을 고려하면서 ‘광우병 파동이 예전에 있었으니깐 이걸 우리는 레드라인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국익에 부합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정부로서는 또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국민들을 설득할 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앞서 정태호 간사 위원님의 질의에 부총리께서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 투자로 미국 현지에서 생산시설이나 공장들이 크게 지어지는 효과를 갖게 되면 과연 우리 국내에는 투자할 재원이 남아나겠는가. 또 이 때문에 전략산업들, 미래 신산업들에 투자가 잘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 국내 산업에서는 그런 분야에 산업 공백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산업구조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미래 경쟁력에도 문제가 있고 일자리에도 당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내생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미국에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데 그게 그냥 한두 편이 아니라 3500억 달러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정도의 재원을 민간 재원들까지를 다 합쳐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로 정부 재원, 공공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내생산을 위해서 또 국내 미래산업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한 재정적 대책이 별도로 강구돼야 되고 동시에 우리 민간기업들이 국내생산·투자를 적극 할 수 있도록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개발해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정협의 과정에서 잠깐 말씀 들어 보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

을 실무적으로 하세요. 그런데 이미 일본이 국내생산 촉진세제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도입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전례 삼아서 우리 실정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또 미국과의 관세협상 문제, 또 그렇지 않아도 미래산업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투자가 꼭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드시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들어서,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없던 세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고안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도 있겠고 또 이게 도입되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도 재정 당국으로서는 염려스러운 대목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존의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국내생산 촉진세제 이 둘 중에 하나를 기업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러니까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하면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적용받지 못하는 거고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선택한다면 투자세액공제는 선택하지 못하게 설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감의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괜찮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미룰 일이 아니고 할 수 있다면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어차피 정부의 관련 세법들이 이번 정기국회 말에 채택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잘 설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필요하다면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장관의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한 취지는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이 있어서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 국내생산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처럼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 다 같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특수 반도체를 생산하는 경우를 촉진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하고 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설계도 하고 또 전문가들의 견도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내부에서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예, 그런 품목 설계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미국이 우리에게 투자를 요구하면서 몇 개의 산업 분야를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이차전지, 에너지, 또 뭐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바이오.

○진성준 위원 바이오.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생산의 기반을 허물 수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임이자 1분 더 드리세요.

○진성준 위원 괜찮습니다.

꼭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알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부총리님, 이번에 미국 정부의, 트럼프의 협상 방식을 보니까, 사실은 관세협상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출발하기 전에 많이 국내 전문가들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패키지 딜로 진행할 것 같다 해서 통상적인 관세협상 플러스 그 분야가 아닌 비관세 분야나 한미동맹에 기반한 군사비, 주둔 비용에 관한 문제, 국방비 GDP 5%의 문제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패키지 딜로 논의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현장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사실은, 만약에 시간이 좀 있었더라면 저희들이 패키지로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8월 1일 데드라인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우선 이걸 빨리 좀 정리를 하자,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아마 통상 문제에 국한해서 정리를 빨리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8월 1일 데드라인을 맞추려면 관세 부분을 분리해서 하는 것도 국익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초 예측했던 방향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결국은 미국은 쟁도 먹고 알도 먹고, 관세협상에서 아주 패권적이고 강압적인 협상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이후 비관세장벽이라든지 아니면 주둔국 비용 그다음에 군사비 GDP의 5% 조항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또다시 압박해 오는 형태가 돼서 저는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관세협상의 결과와 비관세장벽의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국방비 관련한 GDP 5% 허들 그리고 주둔국 비용을 제시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는 사실이 아닌 얘기를 그냥 사실대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한미군 주둔이 2만 8400명인데 4만 5000명 주둔하고 있다고 하지를 않나, 1조 5000억인데 100억 달러를 주둔국 비용으로 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대만 방위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지금 하면서 사실은 한미동맹에 기반한 원칙들을 본인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은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좋은 방향인 양 하는 것도 저는 협상의 과정 속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사회 전체라든지 조금 우리의 목소리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지금 제기될 문제에 관한 기재부 차원의 대응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는 사실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협상한 사람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협상 기술이랄까, 협상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도 충분히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번에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또 다른 부분의 어떤 국익까지도 잘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하고 협의도 좀 하고 전략도 수립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두 번째는, 제가 1차 질의에서 약간 시간이 짧아서…… 임이자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철강, 알루미늄, 화학 이 분야는 사실 우리 제조업 분야의 5대 품목 중에 들어가는 품목인데 이번에 관세가 그렇게 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도 그렇고.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 저는 하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15% 관세에 대한, 50% 관세에 대한 대응들을 어떻게 로드맵을 가지고 준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재부 차원에서 산자부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야 되는데 장관 의견 한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라는 굉장히 핵폭탄과 같은 그런 걸 맞은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업계하고 충분히 상의도 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분,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특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이번 협상할 때 미국 측에서 3500억 불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한 같은 것을 제시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라든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가능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렇게 희망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희망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입밖으로 꺼낸 적이 있었습니까? 뭐 얘기가 나오기도 했겠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얘기는 나오는데 이게 사업 추진상…… 저희들이 좀 설명을 했습니다.

○**권영세 위원** 우리가 지금 못 박기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플로(flow)상 이게…… 우리가 한국에서 사업을 해 보지만……

○**권영세 위원** 예를 들어서 3500억 불이라도 100년이면 1년에 35억 불밖에 안 되는 거고 1년이면 3500억 불을 다 1년에 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스프레드(spread)가 클 텐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내에 한다는 거는 좀 합의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위원님, 미국에서 물류 흐름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진도를, 기존에 공장을 지어 봤던……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에서는 트럼프 임기 내에서 하기를 좀 바라는 것 같다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빨리빨리 좀 해 달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렇게 요청도 있었고.

아까 실제 펀드에 대출이나 보증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고 직접투자는 적게 한다 그랬는데, 어쨌든 돈 만드는 거는 아까 부총리께서, 장관께서 공공부문에서 한다 그랬는데

공공부문에서 다 할 수 있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권영세 위원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라도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대출을 해 주거나 직접투자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어떻게 만듭니까? 결국 채권 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것은 저희들이 수은을 통한다든지 또 보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권영세 위원 아니, 보증 말고 직접투자나 대출의 경우 말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대출 같은 경우도 정부가 수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출자를 해 줘 가지고 거기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권영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행이 되기 시작할 때는 우리 채권시장이나 외환시장 같은 데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박성훈 위원 질의 중에서도 나왔습시다마는 이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이 채권은 해외에서도 발행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민간도 만에 하나 참여할 경우에는 삼성이라든지 이런 생산기업보다는 일반 금융기관들이 하게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마 실질적으로 조선업을, 공장을 짓는다 했을 때는 우리 기업들이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영세 위원 정부가 내는 건데 기업들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미국에 투자를 하지만 그걸 실행하는 사람은 우리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거꾸로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데 들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돈을 벌게 되는 거지요.

○권영세 위원 그 펀드의 투자를 받아서 거기에 공장을 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를 들어서 정부가 조선업을 1500억 불 투자할 때는 만약에 한화가 가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MRO 한다 그러면 한화가 돈을 받아 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거기서 받아 가는 게 그거지 돈 내는 건 다른 데서 하겠지요.

펀드에서 투자처는 지금 우리는 우리도 영향을 준다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결정한다 그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나 우리 국민들이 믿는 거는 우리가 강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한테 투자가 돼서 거기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영업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

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TSMC에 일본의 투자펀드가 투자될 수도 있다라고 정부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권영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한 내용도 TSMC라든지 우리하고 경쟁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뭐 미국에서는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도 아마 그런 경우는 또 자기들 기업에 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그거는 희망 사항이지 우리 경쟁기업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안전장치라는 게, 그걸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협상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이 가더라도…… 그리고 배분도 저쪽으로 대부분 다 가지만 결국 우리 기업한테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 기업이 아닌 TSMC의 미국 공장에 다 투자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마 미국에서도……

○권영세 위원 가능성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반드시 막도록 해 주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권영세 위원 이익 분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하고 설명이 너무 차이가 나요.

우선 1 대 9 비율은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 부분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본하고 1 대 9로 한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시다.

○권영세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세부적인 것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개략적으로 1 대 9로 간다 이 부분은 서로 합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합의가 된 것 없습니다.

○권영세 위원 합의 안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권영세 위원 그렇게 얘기는 나왔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쪽에서 얘기는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권영세 위원 이 부분은 정부에서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게, 들어 보니까 백악관에서는 분명하게 펀드 수익의 90%를 미 정부에 귀속시켜서 국가부채 탕감에 쓴다고 얘기고 있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 국민들에게 귀속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투자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익도 창출하고—세금도 내고 그러니까—고용도 창출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익 같은 경우, 투자해서 나오는 이익까지도 다 가

저간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상식적으로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애초에 펀드 방식 투자는 어디 아이디어입니까? EU도 지금 비슷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일본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요, 일본이……

○권영세 위원 그러면 이런 방식을 우리가 차용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권영세 위원 미국 쪽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일본이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3500억 불 중에서 1500억 불은 아예 조선 쪽으로 하겠다고 빼서 2000억 불만 일본하고 같은 스킴(scheme)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장관님, 우리 기업들에게 한국을 떠나라고 한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김영환 위원 정치적 슬로건으로 정말 잘못된 언어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하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국제적인 무역질서가 완전히 뒤흔들어진 상황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영환 위원 WTO 체제라는 게 지금 거의 붕괴 직전이고 아사 직전 아닙니까? FTA가 지금 다 죽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 미국의 패권적 질서가 사실은 국제질서에 야만적인 질서로 다가오는 것이고 EU도 항복했고 일본도 항복했고 그 와중에 살려고 지금 협상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영환 위원 사실은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이 협상을 저는 대통령 이하 우리 부총리께서 정말 고생하시면서 하나하나를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죽했으면 이가 흔들렸다고 했겠습니까?

혹시 이는 흔들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저도 지금 얼굴이 반쪽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 정도일 겁니까, 사실은. 이 야만적인 국제질서하에서 대한민국이 생존의 길을 새롭게 열어 가는, 사실은 그 중차대한 앞길을 지금 열어 가는 것인데 정말 한국을 떠나라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내뱉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관련해서…… 이게 투자, 대출, 보증 뭐 여러 형식인데요. 사실은 투자하려면 사전조사도 해야 되고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물류시스템이나 각종 원자재 공급이나 생산시설, 설비를 위한 각종 유통이 필요하고.

지금 모든 국가가 3년 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사실상 쉽지 않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김영환 위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일정한 어떤 수요공급의 시장 상황을 또 봐야 되고. 아니, 일시적으로 모두 철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철 생산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시간 제한을 압박하는 것은 저는 정말 무리다, 시장을 보면서……

그리고 투자도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과 조선소를 짓는 것 각기 개별적인 그 짓는 과정의, 투자의 이행기간이 각기 다르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저는 때로는 애매한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수출시장에 새로운 영토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맞습니다.

○김영환 위원 이제 모든 국가들이 다 알았어요. 다 알지 않았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적자 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황을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영환 위원 캐나나나 멕시코나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데 버티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와 연대의 어떤 감정적인 요인들이 저는 더 깊어질 거라고 봅니다. EU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외국에도 많이 다니실 필요가 있다, 산업부장관님하고 같이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 정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또 다른 것은요, 지금 관세가 다 달라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쪽의 인건비나 생산하는 데 드는 코스트를 기업 단위별로 다 볼 텐데 어느 쪽이 생산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이런 게 구분이 가지 않겠습니까? 멕시코에는 기아차 있고 캐나다에는 LG엔솔이 있고 베트남에서는 지금 가전제품 팔고 있고 핸드폰 팔고 있지 않습니까, 경유해서? 그러면 생산비용 코스트가 다 달라져요, 이 관세 때문에. 그러면 경유지에서 수출하는 것들의 수출 전략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함께 잘 검토해 보시고 기업들도 많이 만나셔서 새로운, 어느 생산거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은 15% 낮잖아요, 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김영환 위원 그래서 향후 10년, 20년 동안 수출 전략이 좀 다르게 재편이 되어야 된

다 그런 부분하고, 제가 많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질문 시간도 있어서 마지막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관세협상에서는 EU든 일본이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얘기는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히려 관세가 31%에서 39%까지 막 올라가는 이런 식의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아마 어느 순간에는 또 정상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전에라도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국별로 시장 다변화도 하고 또 나라별로, 어떤 품목은 어떤 나라를 통해서 가는 게 우리의 수출 전략에 가장 좋은지도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장관님,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지난달 말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신용거래용자, 소위 빚투가 22조 원에 달했더라고요. 지난해 말 15.8조 원까지 떨어졌는데 급격한 상승세에 있고 한창 자산시장이 폭등했던 2021년 수준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자산시장을 활성화하거나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것이 무리한 주식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차규근 위원 게다가 신용거래용자는 주가가 하락하면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주가의 추가 하락과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서 부동산시장에 고인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그 큰 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다음으로 세제개편안에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또다시 유예가 된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세무사 등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장관님, 정부가 7월에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27년, 내후년부터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행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사회보험을 고용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첫 시도입니다. 이때 상용근로자 소득이 파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그런데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를 뒤로 미루면, 같은 해

이들에 대한 소득 파악도 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도 시행에 따른 정합성 문제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시행하게 되거나 혹은 제도 전체를 또 유예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은 단지 복지정책이 아니라 혁신의 전제 조건인데요. 삶이 안정되어야 혁신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해고가 곧 살인이 되고 실패가 낙인이 되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보험 대전환의 계기를 또다시 미루게 되면 그만큼 우리 사회의 혁신 동기는 저해되고 노동자들의 삶은 불안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눈앞의 납세협력에 대한 저항을 이유로 또다시 제도 시행을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2027년도부터 고용보험이 소득 기반으로 가는데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미 세법에서 이게 먼저 가 버리면, 고용보험이 소득으로 27년도에 가는데 그전에 납세협력비용이 좀 올라가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를 잘 이해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께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노란봉투법이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게 됐는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차규근 위원 언론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께서 장관님을 만나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만나신 적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어저께 만났습니다.

○차규근 위원 경총 회장님께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노동자들의 염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에도 포함되었던 국민과의 약속인 노란봉투법,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2023년, 재작년 12월 발표된 국무조정실이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발주한 ‘집회 및 시위로 표출된 주요 사회적 이슈의 유형 및 비용’ 최종보고서를 보면 사회·경제적 갈등비용 산출 결과가 있습니다. PPT 띄워져 있는데요.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3년간 사회적갈등에 따른 비용이 약 2628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갈등 유형별로 나누어서 보니까 이념갈등이 1980조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노동갈등이 306조 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혹시 장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오늘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차규근 위원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런 갈등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노사관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노란봉투법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법 제2조 내용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 하청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직접교섭이 가능해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를 통해 교섭의 실효성은 높아질 것이고 서로의 신뢰가 상승해 갈등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노란봉투법은 노동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긴급 간담회를 해서……

30초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이자 예.

○차규근 위원 어제 긴급 간담회를 열어서 경제계 인사를 초청해서는 ‘다들 거리에 나오는데 경제계는 왜 조용히 움직이느냐’라고 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국민 간에 싸움을 부추겨 갈등 상황을 끊임없이 만들고 갈등비용만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장관님, 지난 정부에서는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 10명 중에 7~8명은 노란봉투법에 동의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이제는 싸움을 멈추고 노란봉투법을 통해 노사 간의 신뢰를 상승시키고 갈등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발생하고 있는 노동갈등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현재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정부는 그런 결론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도 하고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님, 아까 1라운드 질의에서 자동차 품목관세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호관세 15%는 8월 7일 날 행정명령에 의해서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는 품목관세잖아요. 자동차도 15%로 합의는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합의는 했습니다.

○김태년 위원 합의는 했는데 이 품목관세를 15%로 적용하는 행정명령은 언제 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원래는 8월 7일 날 저희들이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이게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업계에서 반발이 있는 것 같다 보니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입장을 바꿔 가지고 EU·일본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다른 데 다 그렇긴 한데, 품목관세니까. 그래서 이게 빨리 될 수 있도록,

빨리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협상을 더 하시라 이런 취지로 질문을 했는데 8월 7일부터 자동차도 15% 적용한다고 답변을 하셔 가지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트럼프가 한다 했는데 하여튼 또 최근에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년 위원 좀 헛갈리셨던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작년에…… 작년이 아니지요. 지난 정부 때 법인세 인하하려고 할 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민주당에서는 법인세 인하 안 해도 된다, 오히려 법인세 인하는 것 보다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나 또는 혁신성장을 위해서 더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단 저를 포함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만의 주장이 아니고 경제계에서도, 당시 대표적으로 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게 지금 우리 경제를 위해서 시급한 일이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제개편안을 놓고 보면, 이번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보면 내렸던 법인세율을 정상화하고 미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안을 크게 보면 그렇게 설계를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서 최대 50%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하고 데이터센터 투자 시에 최대 35% 세금도 감면하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방향은 매우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 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적 세제 지원 이것은 필요한 조치고 깊게 공감하는 바인데, 다만 아까 1라운드 질의 때도 했지만 생산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투자 유인, 이게 우리 국내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제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 이것도 지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미국에 3500억 불 투자하게 되면 우리 제조 생태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생산이, 그러니까 국내 제조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고 또 생산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 거고 또 그중에서도 세제로써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전략적으로 설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국내생산 촉진세제 같은 경우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다시 한번, 나는 용역으로 들었는데, 관계 전문가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관계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든 용역을 하든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긍정적으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잘 검토해서 하여튼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부총리님,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이 이번 관세협상 자체를 폼파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대출 위원 부분으로 전체를 덮으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본질을 이해

하고 본질을 파고들어야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취지인데 그 1000억 달러를 가지고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기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이를테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대한 투자수익의 향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답변하신 것 보면 한미 간에도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 결과도, 그 내용도 모르고, 지금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상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를 한 게 없습니다.

○박대출 위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그것 무슨 얘기냐? 앞으로 우리가 다양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접근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고 조금이라도 덜 손해 보고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맞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정교해지고 더 솔직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협상 결과를 가지고, 일차적이라고 그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협상 결과를 가지고 선방했다라고 우리가 만족하는 것과 이게 우리에게 가혹한 협상이라고 미국에 호소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그것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협상을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가 없다, 모든 게 우리 국익을 위하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 이런 문제를 같이 헤쳐 나가야 된다는 시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지금 대미 펀드 3500억 달러에는 민간기업 대미 직접투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 달러 플러스알파예요. 그렇지요? 엄격히 얘기하자면, 민관의 개념으로 보자면.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협상 과정에서 협상용으로 제시한 민간투자가 있기 때문에 향후 정상회담 때 상호 호혜적인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시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가 의견상 같은 15%라고 할지라도 관세 합의가 4500억, 우리한테는 너무 가혹한 결과다, 이 점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사실상 이런 자동차 부문 경쟁력은 어쨌든 기존 상황으로 보면 우리는 경쟁력 후퇴한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그것은 인정할 것은 해야 되는 거지요. 일본 자동차회사들의 주가는 급등을 하고 우리는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받쳐 주고 시장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해야지요. 그래서 일본 언론도…… 이런 경우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관세 2.5%를 적용받던 일본·EU 차에 비해서 한국 차의 기존 가격 우위가 사라졌다 이런 논조의 기사들이 일본에서는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5%로 같아졌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지 않다가 아니라 0에서 15와 2.5에서 15는 다르다, 인정을 할 것은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그래서 제가 선방했다는 자화자찬은 좀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사실상 백악관 대변인이 ‘투자수익 90%는 미국 정부가, 우리 부채 상황을 돕고 대통령이 선택한 문제들에 사용될 것이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이 얘기는 미국이 빚 갚는데 쓰겠다, 미국 돈으로 쓰겠다, 비록 한국에서 투자를 할지언정 그 돈을 한국으로 못 가져간다, 미국에서 쓰고 미국에서 또 투자해라라고 지금 사실상 요구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임이자** 1분 드리세요.

○**박대출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전개해 나갈는지 큰 방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실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협상할 때는 하여튼 한국이 많은 부담을 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또 충분히 해서 앞으로 협상에 있어서는 더 좋은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해라,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투자수익 90%에 대해서는 일본이 먼저 이렇게 하면서 촉발이 됐고, 저희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정상적인 사람들도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새겨 가지고요 세부적으로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협상에서는, 또 이걸 실행하는 관계에서는, 아마 또 미국하고 협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국익을 최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복잡다단한 협상에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디테일이 있는 악마를 탁 건너 내야 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그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투자할 직접투자액(FDI) 금액이 배제된 것은 아니지요? 이미 1500억 정도 있잖아요. 조선업 분야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가 돼서 하는 투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금 미국에서 요청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1500억 불을 조선업에 하고,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이 하게 되는 투자액 거기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향후 4500억, 특히 나머지 2000억 불 있지 않습니까. 투자 패키지를 협상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게 관철이 돼야 됩니다. 최대한 우리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알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세제개편 관련해 가지고 세제개편안이 부총리께서 미국으로 관세협상 떠나시고 그즈음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세제개편안의 목적과 새로운 정부의 철학이 제대로 소개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세목별 영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논의가 치중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제개편의 어떤 배경과 또 그 목적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분명하게 설명하시는 기회를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제가 보건대는 세제개편 배경은 전 정부 때 세수 기반이 매우 붕괴돼서 지금 도저히, 나라 곳간이 비어 가지고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경기를 다시 살려야 되고 또 신성장동력 창출을 해야 되는 전략재정을 운용해야 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세수 기반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안도걸 위원 그리고 안정적 세수를 확보함에 있어서 지금 제가 보건대는 정부가 비정상적인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려고 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법인세 아니겠습니까. 전혀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세율 인하 1%p를 다시 복원시키겠다, 대신 선별 감세를 좀 늘리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 투자하는 실적에 근거해서 투자세액공제를 하시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주식소득 과세인데 지금 현재의 단기투자를 장기투자로 유인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정책 시그널을 저는 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래세나 양도세에 대해서는 세율을 다소 좀 늘리고 대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경감을 크게 해주겠다라는 게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에 성장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자명히 드러나 있지요. 법인세수가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년 전에 비해서 40% 줄었는데 민간투자는 성장기여도 마이너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투자 실적에 따른 선별 세액공제를 확대하시겠다는

거고 이번 세제에서 AI 분야 또 방산 분야를 추가를 했지요. 그리고 또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제작비용도 새롭게 세액 지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세제개편 관련해 가지고 과세체계 정상화인데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논란의 중점이 고액 주식 보유자, 지금 명칭은 대주주로 하고 있는데 저는 대주주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름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고액 주식 보유자 요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게 지금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고려 사항이 지금 주식 보유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종목별로—코스피 기준입니다—50억 이상 보유자가 한 2000명 되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유액이 833억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요. 그런데 10억~50억 사이 보유자가 한 1만 1000명 됩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평균 한 19억 정도 보유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고액 주식 보유자냐라는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준을 종목당 10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과세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팔고 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요인은 지금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분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이자 예.

○안도걸 위원 그리고 과거에 보면 23년도에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50억으로 크게 높였는데, 그러니까 완화를 한 거지요. 그 당시에 순매도가 외려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주주 요건 변경이 순매도를 늘린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주주 요건을, 기준을 개선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당 보유액보다는 총 주식 보유액으로 이것을 바꿔서 합리적인 기준을 책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이따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분리과세를 하긴 합니다만 최고세율이 조금 기대치보다 낮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 생각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최저세율이 지금 14%인데 이것은 종전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만 잠깐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주신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종목당 10억에서 총 주식 보유액으로 하면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00만 원 이하는 14%인데요 이 경우도 아마 ISA라고 거기에다 가입하면 이게 분리, 세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억 이상에 대해서는 만약에 합산과세하면 45%인데, 일부 의견은 또 25%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시다만 그것보다는, 합산과세보다는 낮게 35%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님 질의 시간인데요, 유상범 위원께서는 오전에 한미 관세 관련해서 울산 자동차회사를, 현대자동차를 방문하고 오셔서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전 질의 7분과 지금 보충질의 5분인데요, 합쳐서 10분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정태호 간사님, 팬썰으시겠어요?

○정태호 위원 예.

○유상범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현장의 얘기를 좀 생생하게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사실은 중간에 협상이 거의 한 달여가 붕 뜨면서 막바지 협상에 몰려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 결과에 대해서 15%의 품목별 관세를 유지했다 그 부분은 경제계에서도 그 정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고 아주 절박하게 외쳤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민주당 또 과거에 시민단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시작했을 때 나라를 망친다고 하면서, 나라를 미국에 갖다 바친다고 하면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무릅쓰고 진행을 했고 결국 MB가 그것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경우를 특정한다면 사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고 매출이 늘어나서 지금 세계 빅3라고 평가받을 정도의 거대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리에게 0% 관세로 인한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었고 그것이 일본 자동차 기업과도 경쟁하는 데 있어서 큰 무기가 됐지 않습니까? 일본은 2.5%의 관세가 있었고.

그런데 오늘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니 0%와 2.5% 관세 차이 이것은 2.5%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실제로는 5%의 가격 차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5%의 가격 차이로 인해서 소위 매출 할 때 여러 가지 보상금, 기여금을 주면서 우리 범위를 많이 확장할 수 있었는데 이번 관세협상을 계기로 그런 가격 우위율을 이용한 전략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부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다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제가 12.5% 받아 왔어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유상범 위원 우리가 선방이라고 말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확인해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대차그룹이 작년에 미국에 판매한 게 한 170만 대입니다, 미국 현

지생산 플러스하고 여기서…… 그런데 한국에서 생산해서 보낸 게 한 102만 대입니다, 작년엔. 그러면 전체 판매 중에 57%를 한국에서 생산했고요. 일본 토요타의 경우에는 미국 판매가 234만 대인데 일본에서 생산된 것은 60만 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판매량 중에 25%에 불과한 거지요. 혼다의 경우에는 142만 대를 팔았는데 1%만이 미국산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산업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온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현실적으로 가격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뿐만 아니라 혼다와 토요타의 일반 차량보다도 우리가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내에서 임의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원가절감을 통해서 가격경쟁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나 모든 부품업체들도 관세를 또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가절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우리 자동차산업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왔다. 과거처럼 그냥 놔두면 한미 FTA를 이용해서, 편승해서 누렸던 성장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동의합니다.

○유상범 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오늘 김태년 위원도 같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특히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여러 차량에 대해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도입이 되면, 어차피 재정 부담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정도 예산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그것을 어느 범위까지 얼마나 해 주느냐에 따라서는 좀 많이 달라집니다.

○유상범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수출하는 구조와 경쟁하는 일본 차의 이 차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특히 국내생산 촉진세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긍정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부총리님, 이 부분은 확실하게 위기감을 인식하시고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유상범 위원 지금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 십여 년 누렸던 우리 국내 자동차업계의 발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계 점유율의 확대가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처해질 수 있다, 이것은 공히 인정을 하시고 기재부뿐만이 아니라 산자부도 그렇고 모두 협조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살려 주시길 부탁 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유상범 위원 오늘 보도입니다. ‘한국 투자 비중 줄여라. 글로벌 IB도 세계개편안에 실망했다’, 오늘 보도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이번에 3중 증세 패키지를 하면서, 지금 국제 투자기관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한국이 소위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려는 노력과는 정 백팔십도 배치된 내용의 증세안을 내놨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블랙프라이데이로 110조 원이 넘는 증시가 대폭락을 겪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기재부가 주관은 아니고 금융위나 다른 데가 주관일 텐데 이런 증세안을 패키지로 낼 때 시장 반응에 대한 어떤 예측을 전혀 못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시장 반응에 대해서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측을 했었는데요, 아마……

○유상범 위원 예측보다 훨씬 반응이 강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지난주 금요일 날은 관세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는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관세는 말이지요 정부가 지금 15% 선방을 하고 잘했다고 하고 모든 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없앴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관세협상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저는, 또 어떤 분은……

○유상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의 반응이 116조의 급락입니다. 그리고 국제 IB에서 현재 3중 증세 패키지에 대해서 정말로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노력과는 180도 상반됐다……

즉 기재부에서 이번에 한 것은 결국은 목적이, 세수 부족이 2년간 지속되면서 한 67조 부족이 나니까 세수를 늘리기 위한 부분만 집중을 했지 사실은 그것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검토를 전혀 안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증시라는 것은요 결국은 기대심리고 예상인데 특히 양도세를 50조에서 10조로 내리면서 그동안 매년 연말이 되면 이 사람들이 세금 감소를 위해서 대량 매물을 내놓아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반복돼 왔던 현상이 또 반복된다는 것 예상을 하니까 정부에 대한 기대, 정부에 신뢰가 확 떨어진 겁니다.

이번 주에 증시가 그렇게 올랐는데, 그것 아시지요? 증시 대부분을 떠받쳐 준 게 기관 투자자가 대규모 매수를 하면서 증시를 떠받쳐 준 겁니다. 정부가 떠받친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재부나 관련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 여론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론을, 국민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든 다시 한번 정부가 제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지금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위원님이 주신 자동차 관련 부분은 경쟁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검토한다든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

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세제개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응능부담 원칙이나 또 조세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일부 합리화시킨 부분이 있는데요. 더 많은 지출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기업들 기를 살리는 그런 쪽의 투자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미래에는 ‘아, 그때 세금을 이렇게 정상화했지만 돈을 더 얹어서 기업에 지원을 해 줘서 성과가 있을 수 있었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은 이쪽에는 올렸지만 또 전략산업 같은 경우는 AI 분야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선박이라든지 자율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대폭적으로 인센티브를 또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K-콘텐츠라든지 문화콘텐츠 이런 쪽도 많이 혜택을 늘렸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선택과 집중하는 이런 식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임이자 예.

○유상범 위원 고맙습니다.

간사님, 괜찮으시지요? 떨어뜨리시면 이번만 참아 주시지요. 이것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라고 하고 저희는 불법과업 조장법이라고 하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서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사용자 범위라는 그 규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규정인데 그것을 단체교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금 재계가 엄청나게 위기감을 느끼고요. 더 큰 문제는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업이 해외에서 공장을 짓는다, M&A를 한다 이 모든 게 사업 조건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부 내에서 노동부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기재부 모든 데서 의견을 내셔야 됩니다. 이것 자칫하면요 정부가 관세협상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들 투자시켜 놓고 뒤에 가서는 기업들을 완전히 옥죄는 이런 법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장관께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정부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제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실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로자성 확대 개념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명확하게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일부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고 그러는데요. 법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령으로 그 법률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 만들어 놓으면 보세요, 조만간에 엄청난 노사의 갈등이 야기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끝으로 둘 감사님 남아 계시는데요. 박수영 위원님 5분 보충질의하시고 1분 마무리 발언 하시고 정태호 감사님 5분 질의하시고 1분 마무리 발언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5분 마무리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임이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

○박수영 위원 부총리님, 1년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연간 설비투자에 얼마나 쓰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업들이 투자하는 돈 다 합하면 얼마인지 아느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

○박수영 위원 잘 모르시지요? 그게 한 200조 정도 됩니다. 정부가 투자하는 것하고 합쳐도 250조 원이 안 돼요, 250조 원이. 그런데 이번에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대미 투자액이 3500억 불, 한화로 하면 485조 원입니다, 485조 원. 그러면 1년에 우리 기업들이랑 정부가 투자하는 것 다 합쳐도 250조가 안 되는데 그 2배를 넘는 금액을 설비투자하겠다는 데……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3500억 불이라고 주장하시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나라 투자하는 전체 돈의 2배를 넘고요, 그다음에 LNG 구매까지 포함하면 2.6배고요, 추가 협상에서 얼마 될지 모르지만 언론이 추측하는 대로 1000억 정도 되면 일본 금액인 5500억 달러가 되면 우리나라 전체 투자하는 것의 3.2배까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3500억 불만 따지더라도 이것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 국내 투자가 완전히 고갈되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3500억 불 누가 제안한 거냐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1000억 불로 시작했다면서요. 그런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하다가 3500억 불까지 갔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라든지 투자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숫자만 가지고 협상을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실패한 협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미국의 3500억 달러 제일 적은 안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국책은행들이 여신을 해 주는 총여신이 보증과 대출 합하면 무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이 주종인데 이것 금액을 다 합하면 521조 원입니다, 521조 원. 그런데 485조 원을 미국에 대미 투자를 해 버리면 국내에 투자할 돈은, 이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투자할 돈은 전부 또 없어지게 되는, 거의 없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3500억 불이라고 하는 대미 투자가 얼마나 잘못된 협상이고 얼마나 잘못된 숫자인지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대미 투자가 있기 전 우리나라 FDI 갭입니다. 지금도 대미 투자 3500억 불, 4500억 불, 5500억 불 하기 전에도 보시면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잘 아는 표겠지만 대미 직접투자 총액도 68년부터 2024년까지 57년간을 다 합쳐도 3000억 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합의한 것은 최소 3500억 불, 최대 5500억 불. 아니, 도대체 어떤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합의를 해 오셨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해외 유출이 많은, 대외 직접투자 유출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설비투자가 제로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추세가 고용 나빠질 거고요 투자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라는 거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국내생산 촉진세제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 하시는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번에 내신 세제개편 안에는 뭐가 들어 있는지 압니까?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설비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설비투자한 데 대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있는데 그것 폐지하겠다고 내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내놓은 세제하고 맞지를 않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 검토하고 국회에서 검토하면서 정리하겠지만 이렇게 맞지 않는 세제를 내놓으면 어떡합니까?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있는데 임시투자 없앤다고 냈잖아요, 이번에. 그다음에……

저도 1분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위원장 임이자 마무리 발언 하시지요.

○박수영 위원 아니, 마무리 발언 또 할 겁니다.

7월 31일 날 협상하면서 당장 25%를 그다음 날까지 합의 못 하면 맞기 때문에 급하게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아까 여러 차례 답변하셨어요. 전략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일찍 가고 처음부터 일찍 협상하고 처음부터 해야지 벼랑끝 전술이라는 단어까지 쓰시면서 끝까지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날짜 한번 볼까요, 각국 정상들이 G7에 도착한 날짜? 저는 더 일찍 가셨어야 되고 더 일찍 트럼프와 악수해야 되고 더 일찍 만나야 된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두 번을 밥을 먹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래 가지고 10% 관세로 갔는데 우리는 보시면, G7 회의 기간에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일찍 가서 기다렸다 만났지 않습니까.

1분 추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갔느냐, 6월 15일 날 다 도착했는데 우리는 6월 16일 오후에 도착했는데 하필 그날 트럼프가 귀국을 하게 되는 바람에 악수도 못 했던 것 아닙니까. 그다음, 체류를 하다 오셨지만 결국 트럼프를 못 만난 것이고 나토는 또 아예 안 가셨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만나고 미리미리 협상하고 시간을 많이 가져야 우리 레버리지를 갖는데 마지막 날 협상하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부총리님 고심은 내가 알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안 하면 25% 맞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서둘러서 했다고 아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 전략 전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테니까 좀 하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3500억 불에 대해서 우려,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1년에 이루어질지 2년에 이루어질지 사업을 추진해 보면, 한국의 경우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설계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아마 상당한 시간은 저는 걸리리라고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저희들이 예측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말씀하셨는데 이게요, 제가 와서 보니까 임시투자

세액이 아니고 늘 투자세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맞는지 그래서 통합투자세액으로 가능하면 저희들 끌고 오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은 사실은, 진짜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빨리했는데 여러 가지 국내외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빨리했으면 좋았을 건데 마지막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 어차피 소나기는 좀 피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절박함도 있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이자** 소나기 피하려다 천둥 옵니다.

다음은 정태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선방했다라는 게 제 평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걱정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부터는 추가 협상과 그리고 관세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면 자유무역체제에서 관세가 등장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렇게 예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서 많은 걱정들을, 구체적으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관련한 그런 대책들을 잘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석유화학 부분은 이번 협상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지요, 석유화학?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석유화학이요? 석유화학이라고는……

○**정태호 위원** 별도로 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15%, 구체적으로……

○**정태호 위원** 그때도 15%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정태호 위원** 역시 아까 제가 철강을 말씀드렸습시다라는 지금 석유화학이 대단히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협상이 석유화학산업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하고 직접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속하게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미FTA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지 않습니까?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미FTA를 우리는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이런 부분, 트럼프 정부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만약에 변화된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다시 한미FTA로 복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이 구태여 우리가 한미FTA는 이렇게 했다고 하기보다는 한미FTA하에서, 어쨌거나 하여튼 최대한 이걸 끌고 가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비정상적인 통상협상에 적응하는 두 트랙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태호 위원** 제 기억으로도 2018년도 그때 트럼프하고 처음 자동차, 철강 관련된 협상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한미FTA였거든요. 그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미FTA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좀 전략들을 잘 세워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무현 대통령 때 개방적 통상국가라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외 전략, 경제 전략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에서 한미FTA가 시작이 되고, 원래는 일본하고의 FTA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것보다는 한미FTA를 통해서 그게 체결이 되면 그게 기준이 돼서 전 세계적인 FTA를 체결해 나간다, 그런 전략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아마 22개국 정도가 FTA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 이후에 FTA 영향으로 한국의 수출이 상당히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왔던 걸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때 와서는 이걸 좀 더 확장해 가지고 신남방·신북방 정책으로 대외정책, 경제정책을 확장해 왔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뭔가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체제로의 전환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대외 무역정책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지요. 최근 들어와서 글로벌 사우스 전략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반적인 무역 다변화 이런 것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명확한 방향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통상 환경이 아주 변칙적인 그런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향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또 연구기관 또 대학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수립을 하고 또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서 정부 간에 논의도 하고 또 국민들께 발표를 드려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큰 전략도 필요한 시점이고 산업별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도 필요한 거고 국가별로 대응 전략이 필요한 그런 대전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그 역할을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본 위원장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협상은 늘 상대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래서 더 어렵지요. 그래서 협상에 임할 때는 우리가 상대방의 전략을 탐색하게 되고 그에 대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해서 협상에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이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이번에 우리 한미 관세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민간기업에서 얼마만큼 기여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민간에서도 의회라든지 또 행정부의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요소요소에 아마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특히 조선업에 대해서는, 또 예산국장이 현지에 있는 한화의 조선소를 방문하고 한 이런 사례까지 봤을 때는 정부뿐만이 아니고 민간이 하여튼 총체적으

로 최대한의 대응을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현대자동차도……

○위원장 임이자 한화나 현대자동차 각 총력전을 펼쳐서 그나마 이렇게 했더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이 한국에 있는 모 교수의 아드님도 있더라던데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 보고 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요소요소에 있는 분들하고 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떻게 전략을 펴야 되는지, 협상을 해야 되는지 협상의 노하우도 듣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또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렇게 다 총력을 기울였지만 8월 1일이라는 협상 시한은 정해져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힘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뭐라고 할까, 참 안타까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애환도 있고 이랬을 텐데, 그러나 또 국내에서 평가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요? 좋은 평가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유상범 위원님께서 현대자동차 갔다 와서 생생한 애로 사항을 전해 줬는데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5%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동등하게 가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경쟁함에 있어서 결코 녹록지 않더라는 목소리도 생생히 전해 줬고요.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뒤집어엮어서 1500억 불 마스가 투자라든가 아니면 2000억 불 펀드 조성뿐만 아니고 대미 투자 관계를 엮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의서를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엮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LNG야 우리가 도입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것은 빼더라도.

그러면 8월 말쯤에 한미 정상 간 회담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지금 관계부처하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최소한 2000억에 대한, 마스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2000억에 대한 투자 계획이나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먼저 선제적으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지금 보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이런 관세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거나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여론도 많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트럼프의 임기는 4년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4년이면 우리가 이런 것도 다 감안해 가지고 협상에 잘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일컬어서 세세 정부라고 그래요.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어 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국내에서는 증세로 인해 가지고……

○정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니, 부총리께서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를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예요, 제가 충심에서.

국내에서는 증세로 인해서 굉장히 힘이 들고 밖으로는 관세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대만이나 중국에는 세세 외교를 계속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세세 정부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오기형 위원 아니, 그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비유가?

○위원장 **임이자** 그래서 부총리께 제가 요청하는 것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법인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또 반대 쪽으로 우리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국내생산 촉진세제도 우리가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또 한편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그것은 아직 하먼 안 되지 않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부총리께서는 경제 수장이십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컨트롤하는 경제 수장으로서, 아까 본 위원이 철강 관련해서도 굉장히, 철강 문제로 해서, 관세 50% 이것은 더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니 한 지역의 경제가 흔들리니까 포스코에 돼 있는……

물론 또 어디지요, 전라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광양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광양입니까? 광양, 이뿐만 아니고 이런 데 있는 지역 경제가 굉장히 흔들릴 소지가 있고. 결과적으로 거기 계신 지역 주민들이 국민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아주 기계적인 답변만,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요건이 맞으면 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실망스러운 답변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법인세는 인상하자, 그리고 또 투자세액이라든가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우리가 따로 지원해 주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그러면 병 주고 약 주자는 건지.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관세협상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온 뒤에 그다

음에 법인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고.

왜냐하면 농산물 관련돼 가지고 쌀이라든가 아니면 쇠고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거기에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국민적 정서를 보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과채류 같은 경우에는 부총리님께서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AI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서 8단계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당장 개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과채류 농사를 짓고 계시는 우리 농업인들은 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한미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 법인세 문제가 나와도 늦지 않고, 그리고 나서 노조법 2조·3조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가서 하나씩 하나씩 좀 순차적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 나가면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폭탄 던지듯이 확 폭탄 던져 버리니까 국민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봤을 때는 앓아 눕는 겁니다.

그리고 민심은 조금 더디 움직입니다. 그러나 정심은 아주 빠르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경제 수장으로서는 부총리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산업공동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 좀 제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가 잘 얘기해서, 사용자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구체적 지배설에 대해서 명징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국무회의 때는 허심탄회하게 부총리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그래도 부총리의 말씀들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그리고 포항에 대해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나중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님 말씀 무슨 취지의 의미인지를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저는 관심이 한국 경제가 진짜 진짜 성장을 할 수 있는 혁신경제로 가는 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론적으로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정책도 나올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그 파트에 있는 분들은 또 열망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기업이라든지 또 근로자분들이라든지 또 국가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진짜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나 그다음에 예산 반영 이런 데에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장님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철강 50% 관세에 따라서 진짜 철강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게 또 지역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지역에 있는 회사들하고도 회의를 하고 또 관련 부처하고도 회의를 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이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까 그런 차원의 적극적인 개념으로 제가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마지막으로 박수영 위원님 마무리발언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정태호 위원님 하시고.

○오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의사진행발언 1분 하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정태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 임이자 오기형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오기형 위원 위원장님, 늘 말씀하셨듯이 위원들 간에 질의할 때는 좀 절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것보다는 안 하시는 게 좋은 말씀을 하셔서 실은 좀 유감이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위원장 임이자 알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서로가 특히 정책 논쟁하고 또 정책이 잘못됐고 비판은 해야 되고 그 비판 자체를 갖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표현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러저러한 집회에서 나왔던 그런 용어들을 여기서 바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하면 서로가 또 쓸데없는 목소리만 높아질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유감이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제가 정청래 위원장님을 보고 배웠는데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발언 양 간사님 1분씩 하십시오.

○박수영 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48년 정부수립 이후에 산업화, 민주화 거쳐서 지금 선진화 문턱에 들어서 있는 발전 역사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미 관세 이 문제는 그동안 쌓아 왔던 산업화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빅뱅과 같은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부총리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총리님께서 평생 경제관료로 살아오시면서 성과도 많이 냈고 아주 우수한 공무원으로 잘 역할을 해 오신 것을 제가 옆에서 평생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닦친 상황은 관료로 잘했던 방식으로 조금조금 야금야금 인크리멘틀리(incrementally)가 가지고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전체를 바꿔야 될지도 모르는, 기업들을 위해서 지금 증세정책 이것 다시 봐야 될지도 모르고요.

규제완화, 엄청나게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노동 규제 52시간 제도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까지 포함해서 또는 북유럽을 향해 가는 복지정책에 어쩌면 스톱을 시켜야 되거나 후진해야 될지도 모르는 정도의 빅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그다음에 현금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재고도 필요할지 모르는 정도의 빅뱅의 경제위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그동안 관료로서는 잘해 오셨지만 이제는 관료로서의 생각을 버리고 대한민국 산업화라고 하는 긴 역사가 혹시 망가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부총리께서 잘 좀 고민하시고 의논하셔서 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 주셔야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하고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박수영 간사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패러다임을 바꿔 가지고 경제정책 운영 방향도 바꾸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나중에 이게 과거하고는 진짜 많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거나 저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진짜 세계에서 최고 잘나가는 나라로 만드는 게 제 꿈이고요. 그 할 수 있는 길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아까는 하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위원장 **임이자**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정태호 위원 주세요.

○위원장 **임이자** 정태호 간사님, 마무리발언 해 주십시오.

○정태호 위원 저는 아까 마무리 말씀 다 드렸어요, 다 드렸고.

이건 마무리 말씀이라기보다는 진짜 위원장님에 대한 유감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데, 오늘 같은 이 회의는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운명이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당 또는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의 시각은 다르더라도 정부가 귀담아들을 내용들이 너무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부총리께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유상범 위원께서 특별히 시간을 요구하실 때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동의를 해 드렸던 것인데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래도 저희 위원들이 위원장님과 함께하면서 국가의 큰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논의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장님이 불필요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말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저도 할 말은 많습시다마는 우리 기재위의 평화를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이인선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윤영석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권영세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대출 박성훈 박수영 박홍근 안도걸 오기형
 유상범 윤영석 이인선 임이자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진성준 차규근 천하람
 최기상

○출장 위원(1인)

박민규

○청가 위원(3인)

안규백 윤호중 정성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정지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제1차관 이형일
 제2차관 임기근
 차관보 윤인대
 국제경제관리관 최지영
 재정관리관 안상열
 기획조정실장 김진명
 세제실장 박금철
 경제정책국장 김재훈
 재정정책국장 장문선
 국제금융국장 김재환
 대외경제국장 민경설
 사회예산심의관 박준호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홍기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2025. 7. 29.
이주희	·	더불어민주당	2025. 8. 6.
·	박민규		

○의안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6)

이상 3건 7월 22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2.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2.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2.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6)

이상 4건 7월 23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83)

이상 3건 7월 24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4.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06)

이상 4건 7월 25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3)

이상 2건 7월 28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8.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8)

이상 10건 7월 29일 회부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30)

이상 3건 7월 30일 회부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0.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이상 4건 7월 31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31. 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8)

이상 8건 8월 1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 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8)

이상 4건 8월 4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4.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1)

이상 3건 8월 5일 회부됨

○청원 회부**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2025. 8. 1. 박민진 외 116,19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8)

8월 4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대통령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35693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부령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제1139호	제정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138호	일부개정	기획재정부